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육그룹 선호도 **1위 해커스**
한경비즈니스 선정 2019 한국 브랜드선호도 교육(교육그룹) 부문 1위

해커스 세무사 1차
집중관리 기본종합반

혜택 1

최신 독서실
무료!

*수강기간 동안

혜택 2

집중관리반 전용
학습 플래너+ 스톱워치 제공!

*비매품

혜택 3

복습인강
무료!

*과목별 종강일+7일까지

혜택 4

해커스 토익
인강 제공

토익 RC **전미정**　토익 LC **한나**

[원재훈]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온라인 단과 강좌 순매출액 기준(20.12.01~21.05.31)　[정윤돈] 19년1월~21년 7월까지 해커스 재무회계 매출건수 기준
[엄윤] 해커스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단과 강의 매출 건수/판매량 비교 결과(2019~2021.07)

학습상담
02.599.3011

cpa.Hackers.com
집중관리반 바로 신청하기 ▶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육그룹 선호도 **1위 해커스**

한경비즈니스 선정 2019 한국 브랜드선호도 교육(교육그룹) 부문 1위

해커스 세무사

평생 200% 환급반

수강료 최대
200% 환급

*미션 달성 시, 제세공과금 제외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불합격 인증 시/상세내용 페이지 확인

PC+모바일 다운
이용권 무료

합격하면 수강료 최대 **300만원 환급!**
평생 수강 가능한 세무사 200%환급반 수강하기 >

[원재훈]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온라인 단과 강좌 순매출액 기준(20.12.01~21.05.31)

고객센터
02.537.5000

cpa.Hackers.com

초보 수험생을 위한

해커스 세무사 합격 가이드북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지금 “세무사 합격!”이라는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합격의 문턱을 넘는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도록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는 오늘도 연구합니다.

세무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부터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만의 합격시스템까지

시작점에 선 여러분이 한 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세무사 시험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와 만나면
세무사 합격,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CONTENTS

1 PART

합격 선배들이 알려주는
세무사 합격 수기

01 제57회 합격생들의 후기
만 20세 최연소 합격생 후기 외

02 제56회 합격생들의 후기
샘플 강의로 삶이 바뀐 후기 외

2 PART

꼭 알아야 할
세무사 시험 최신 정보

01 세무사란?
1) 세무사의 직무와 전망

02 세무사 최신 시험 정보
1)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2) 시험일정 및 과목
3) 어학성적
4) 시험 일부면제
5) 합격기준
6) 합격 통계

03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1) 세무사 시험제도
2) 세무사 학습방법
3) 학원 VS 온라인

3 PART

교수님이 제시하는
과목별 학습 전략

세법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정학
민법
상법

4 PART

시작부터 합격까지,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01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연간 커리큘럼

02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의
1) 집중 관리반
2) 200% 환급반 / 평생반

03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재

04 세무사 온·오프라인 설명회

5 PART

세무사 1 · 2차
적중 문제

01 재정학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02 재무회계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03 2021년 제58회 세법학 1, 2부 적중 문제

04 문제 해설

세법은 공략이다!

해커스 세무사를 만나면 세법을 유쾌하게
풀어 낼 수 있습니다.

1
PART

합격 선배들이 알려주는 세무사 합격수기

01 제57회 합격생들의 후기

만 20세 최연소 합격생 후기 외

02 제56회 합격생들의 후기

샘플 강의로 삶이 바뀐 후기 외

01. 제57회 합격생들의 후기

김준영 세무사

"실전 모의고사 답안을 무작정 필사하다보니 스스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장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수기

아버지가 세무사라는 이유로 막연하게 공부를 시작해서 오랜 수험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수강생들은 세무사의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하였을 것이므로 저보다 분명히 빠른 기간 내에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1차 시험을 3회 응시했으며 2차 시험 5회 만에 합격하였습니다. 합격하기까지 대략 5년의 기간이 걸렸기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2차 합격자 발표를 보는 순간 5년간의 수험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합격 수기는 동차생보다는 유예생이나 장수생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5년 넘는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기초에 충실하자."입니다. 오랜 수험 기간을 보냈음에도 2차 시험의 점수는 수험 기간에 비해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탓도 있었겠지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초는 등한시하고 어려운 문제, 구석탱이 내용의 문제들만 찾아봤던 것 같아서 4번째 2차 시험에 낙방했을 때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기본서, 원가관리회계 기본서, 세법개론 4권만 가지고 다시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초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니 문제 푸는 방법만 암기해서 풀던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커스 모의고사로 시간에 맞춰 푸는 방법 연습

실제로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에서도 기본서의 문제와 숫자만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가 대다수인 것을 기출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2차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중급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기본강의만 듣고 바로 **[유예 1, 2, 3기 우편 실전모의고사(GS모의고사)]를 신청하여 시간에 맞춰 푸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수험 기간이 길었기에 같은 책들이 많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매주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무엇보다도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을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다르게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교시 [회계학 1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

1교시 회계학 1부는 수험생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객관식 문제와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관식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풀지 못하거나, 주의할 것을 놓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분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개발한 틀로 풀거나, 그림으로 푸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분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풀게 되면 하나씩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쉬우며 분개로 푸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2차 시험의 회계학 1부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답을 도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4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교재 : 재무회계연습(김원종) / 원가관리회계연습(강경태) / 실전모의고사(해커스)
강의 : 실전모의고사 해설(해커스)

2교시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 역시 정확한 답을 도출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2차 시험만 4번 떨어지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아는 것만 제대로 풀어도 60점은 넘을 텐데..." 회계학 2부는 회계학 1부에 비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난이도도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풀어서 많이 맞으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문제를 다 풀려고 욕심 내고 그러다 보면 급하게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문제지를 받아서 파본 확인할 때에 본인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스캔한 다음 그 문제들만 정확히 푼다면 60점은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보고싶은 원재훈 교수님의 교재

많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세무회계연습 책이 간결하고 시험에 나오는 주제만 모아 놓은 책이라 5번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출제자에 따라 물어보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문제라도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소함에 익숙해지고 싶으시다면 유예3기 실전모의고사를 적극 추천 드립니다. 실력 있는 여러 회계사, 세무사 분들이 실전과 비슷하게 문제를 내 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교재 : 세무회계연습 (원재훈) / 실전모의고사 (해커스)
강의 : 세무회계연습 (원재훈) / 실전모의고사 해설(해커스)

3, 4교시 [세법학 1부, 2부]

원재훈 교수님을 통해 답안 작성요령을 익히다

어릴 적부터 책도 전혀 읽지 않았고, 글 쓰는 재주도 전혀 없었기에 세법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원재훈 교수님의 실전 모의고사 답안을 무작정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예 2기 때부터 우편 실전 모의고사를 받아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수차례 필사를 하다 보니깐 자주 출제되는 문구는 저절로 암기가 되었으며 분량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유예3기 실전 모의고사부터는 저 스스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16쪽 정도는 힘들이지 않고 적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특법"입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조특법일 텐데요, 점수 획득에는 조특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부끄럽지만 올해 처음으로 제대로 조특법을 공부해서 조특법 덕분에 시험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특법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조특법은 주제별로 의의, 요건, 사후관리 이 정도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봤으며, 조특법 1회독 하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으며 시험 전까지 30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교재 : 세법학 1,2,3 (원재훈) / 실전모의고사 (해커스)
강의 : 세법학 강의 (원재훈) / 실전모의고사 해설(해커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도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독서실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에 대한 신뢰와 노력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김준영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혁재 세무사

"그냥 하루하루 버티세요. 그럼 넘어가요"

자기소개

원재훈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에서 원재훈 교수님 세법학 기본반, 유예2기 심화반 (세무회계, 세법학), 유예3기 실전모의고사 반을 수강한 김포 사는 이혁재라고 합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1. 회계학개론

[“이해”와 “분개”를 집중하자]

1차 시험공부법은 1차 시험만을 위해서도 있지만 수험 기간 동안 “개념”의 틀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해”와 “분개”입니다.

회계원리의 스토리를 알면 장기기억으로

회계에 무슨 “이해”가 있겠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토리를 알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이건 모든 과목에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매매증권은 oci가 아닌 pl로 처리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oci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자본으로 처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하지만 정보 이해관계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며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분개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계의 체계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계는 결국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무조정은 결국 회사의 “분개”를 세법의 “분개”로 바꾸는 것이기에 중요합니다.

2.세법학개론

[일단 합격하자! 말문제에 집중]

[1차는 자신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 집중]

세법학 개론은 그 양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목표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말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1차 시험이 자신 있고 2차 시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산문제까지 집중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3. 재정학

[전략 과목 시간 관리와 70점 확보]
하루에 2시간으로 공부시간을 잡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시는 걸 추천 드리지만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재정학은 1차 시험에 전략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이랑 같은 교시에 시험을 보고 시간 관리에도 좋은 과목이며 점수도 잘 나올 가능성이 회계학이나 세법학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재정학은 오답노트가 효과적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버리시고 문제 푸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으로 여기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 상법

[평균을 책임져 줘]
상법은 1차 시험 2번 치르는 동안 20분 내외로 풀었으며 점수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 양이 적다 2. 회독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된다입니다.
공부시간은 1시간, 자투리 시간에 회독 수를 늘렸습니다. 오고 가는 버스, 밥 먹는 중간 중간입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1. 회계학 1부

[시간과의 싸움]
회계학 1부는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세무회계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 1차 시험 난이도에서 2차 난이도가 체감상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와 큰 차이는 주관식과 객관식입니다. **저는 "계산 실수"가 잦은 편이라서 처음에는 집중력을 높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년 차에 결국 시간관리가 계산 실수를 줄여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회계 40분 원가 30분 남은 20분을 검토 시간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학 1부는 첫 교시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집중하셔야 합니다.

2. 회계학 2부

[반복 반복 반복]
기본서 1권을 1년 차는 3번, 2년 차에는 5번, 3년 차에는 6번, 4년 차에는 4번 반복했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하며 항상 마음속에 1. 처음 보는 거다 2. 실제 시험장이다 3. 맞추자 였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독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고 두 달에 한 번씩 1회독 한 것 같습니다.

3. 세법학

[성적이 암기순이라면 당신이 아닌 컴퓨터가 세무사가 되어야 한다.]
세법학이라는 과목 암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암기"만" 이 성적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은 법령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1년 차 2년 차 세법학 점수는 과락이었습니다. 심지어 2년 차에는 점수가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자료로 반복학습

그래도 **제가 세법학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1. 법령을 이해하려는 노력 2. 법문의 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 3. 법률의 효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법령을 취지, 효과 등을 스토리로 짜면서 법령을 이해했습니다.
세법학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유혹이 크지만 기본서를 요약서처럼 만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령들의 유기성을 알려면 기본서가 더욱 보기 편하고 깊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문구 혹은 조특법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마치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냐?]
합격하기 위해서 수 많은 슬펌프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매일이겠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 혼자 하고 고생하는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수험 생활 중 알게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버티는 거에요.
같이 하다 보면 따라해요. 그 친구가 나를 내가 그 친구를 버티다 보면 또 사라지는게 슬럼프 아닐까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 때는 "수험동기"에 썼던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초라함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수험생활 중 큰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그냥 버티는 거에요. 없어요. 그냥 버티세요. 마지막에 웃는 게 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조차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세요. 그럼 넘어가요.

해커스의 커리큘럼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이혁재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조규현 세무사

"이해 위주로 필수 암기만을 가지고도 합격하였습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안녕하세요. 이번에 3차생으로 57기 세무사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취업만 바라보고 대기업에 입사하였지만, 곧 직장을 그만두고 세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3차생으로 합격하여 수험 기간은 2017년 9월 가을종합반으로 시작하여 2차까지 약 3년 공부하였습니다.

합격 이후 그동안 공부기간을 되돌아보면서, 잘했던 점들과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합격 수기를 작성합니다.

해커스를 선택하게 해주신 원재훈 교수님

수많은 학원들 중에서 해커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단연 세법학 때문이었습니다.
동차 당시 세법학을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게 했던 다른 교수님들과는 다르게 이해 위주로 필수 암기만을 가지고도 합격하여 현재 실무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원재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1차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하여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차 합격하는 데에는 주요하였지만, 이후 동차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져간 범위만이라도 열심히 해서 시험에 들어갔으면, 약간의 운이 따라주면 충분히 동차합도 노려 볼 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략적인 공부법

- 재정학: 기본이론 강의 수강 후 기출문제 위주로 회독 수 늘려 나갔습니다. 계속 출제되는 선지가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처음 볼 때에는 계산문제까지 최대한 가져가려 했고, 모의고사에서 시간 부족하여 망친 경험을 한 후에는 전략적으로 너무 복잡한 계산문제나 그래프 문제(특히 독점)는 직관적으로 찍고 넘어가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행정소송법: 기본강의 수강 후 조문을 반복적으로 봐서 익숙하게 하였고, 행정소송법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파트들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O, X로 정리하여 막판에 보고 들어갔습니다.

- 세법: 1차는 법, 소, 부는 말문제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초시 때에는 국기, 국징, 조처법에서 12문제를 맞춰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합격하였고, 3차생 때 본 1차 시험은 국기 및 법소부 계산문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 재무: 이론 수강 후에는 문제집 한 권을 골라서 반복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권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 보다 보니 처음 풀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개념들이 보이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틀린 문제들만 보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동차나 유예 때는 재무나 세무회계에 힘을 초반에 많이 주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세법학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 불안해서 막판까지 세법학을 하느라 오히려 세무회계와 재무가 60점 이상이 나오지 못하여 과락 하였습니다. 물론 세법학도 공부가 많이 부족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중요부분을 강조해주시는 원재훈 교수님

- 세법학: 개인적으로 세법학은 유예 1기할 때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시기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판례 등을 직접 찾아가면서 읽고, 암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써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자주 찾아보다 보니, 판례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 문구들이 반복됨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들이, 원재훈 교수님이 별표 쳐주시고 외우라고 강조하신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밴드에서 스터디 원들과 스케줄을 짜서 시간을 재고 각자 쓴 내용을 올려 피드백해 주는 스터디를 하였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겨 백지에 그날 공부한 부분을 떠올리며 직접 써보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법학 1부에서 제대로 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외국법인, 추계, 증여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Top-Bottom 형식으로 큰 논리 위주로 전개하니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GS를 통하여 낯선 문제나 주제들도 써보는 훈련을 해보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기본 개념이나 논지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재무: 재무는 너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는 폭넓게 전범위를 기본문제 위주로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는 각 챕터 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제가 실수하는지를 정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 부분만을 보고 들어간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가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 사실 점수가 가장 늦게 오르고, 휘발성도 강한 과목이 세무회계였던 거 같습니다.
  아무리 서브노트를 외워도 금방 까먹고, 또 문제에서 보면 실수하였고,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연습서 회독을 통하여, 각 챕터 들에서 주요 유형 및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합격하고 보니 기본에 충실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만 제대로 맞추면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틀려도 합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고 회독 수를 늘려 본인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이 답답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영화를 본다거나 농구를 하면서 답답함을 달랬습니다.
다만 하루를 꼬박 다 써버리면 다음 날 다시 페이스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몇 시간씩은 공부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을 믿고 따라
최종합격으로!
조규현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신승환 세무사

"제가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을 했지만 단기간 내 동차 합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전 57회 세무사 시험에서 최연소로 합격한 신승환입니다.
제가 만 20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을 했지만 일찍 시험 준비를 해서 그렇지 단기간 내에 동차 합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종 합격하기까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초시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유예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유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수기를 작성해 봅니다.

1차 시험 공부 방법

1차 시험은 실력이 부족해도 전략을 잘 세우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 1차 공부기간에는 회계 및 세법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차 합격을 목표로 1차 공부를 하였습니다. 1차 시험기간에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하러 학원에 간 것 제외하고는 1년 동안 동네 독서실에서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복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제가 회계 및 세법의 기본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서를 5번 이상 보았고, 최대한 내용을 이해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신승환 세무사

(1) 재정학

재정학은 경제학에서 파생되는 학문으로 난이도가 있는 과목입니다. 전 기초 경제학 강의를 먼저 수강하였고 이는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말문제의 경우 나왔던 지문이 계속 나오므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론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워 보이는 계산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행정소송법

1차 시험에서 고득점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역시 나왔던 지문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를 듣고 기본서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곧바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하루에 1회 기출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것을 목표로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3) 회계학개론

1차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버리는 부분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는 어려운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 때 관련 이론을 먼저 떠올리며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해보고 파악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의 회계학은 실력만큼이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풀 문제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 없는 주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4) 세법학개론

세법을 깊고 재밌게 이해하는 방법

세법개론 강의를 듣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암기하기보다는 법문이 만들어진 취지를 생각하며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바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세무회계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법 계산 문제를 통해 세법이 더 깊게 이해가 되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지엽적인 주제는 과감하게 포기하였고,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다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차 시험 공부 방법

동차 준비할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유예 때는 모든 범위를 공부해야 합니다.
연습서를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전략보다는 공부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차 과목 특성상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고 직접 실전 답안지에 적어가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회계학 1부 (49 → 76)

회계학 1부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까지 완벽하게 풀어야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버리는 주제 없이 모든 주제의 기본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학은 조금만 손을 놓고 있어도 금방 감이 떨어지므로 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1차 시험 때 공부 방법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관련 이론을 먼저 떠올리고 각 주제별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해보고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반복하며 주제별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2) 회계학 2부 (74 → 73)

세무회계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동차 때는 과락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만, 유예 때는 전 범위를 모두 공부하시고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세무회계는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먼저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세세한 규정들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연습서를 10회독 이상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예 2, 3기 모의고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세무회계는 많이 보고 많이 푸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커스의 높은 퀄리티의 문제

다른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스 경영의 모의고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고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도 자세하고 문제의 퀄리티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막판에는 해커스 경영의 모의고사 문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승환 세무사

(3) 세법학 1부, 2부(35, 54 → 59, 57)

과거에 법령만 잘 적으면 과락은 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만 믿고 동차 때 요약서 한 권을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타 학원 동차 모의고사 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매우 당황하였는데 어떤 법령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문제도 뭘 묻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출제경향이 과거와는 많이 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을 직접 물어봤다면 현재 시험에서는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 지식을 요구하며, 법령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57회 세법학 2부 문제를 통해 많은 수험생들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험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요약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서를 통하여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세세한 규정을 암기하기보다는 각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리를 이해하고, 판례에 나오는 중요한 문구들과 개념들을 암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원재훈 교수님만 믿고 공부했습니다

저 역시 유예 때 원재훈 교수님의 기본서를 정말 많이 반복하여 보았고 판례도 최대한 많이 보았습니다. 암기는 원재훈 교수님께서 강조한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특히, **원재훈 교수님의 모의고사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느낌이고 세법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신뢰와 노력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신승환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최원석 세무사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커스 유예1기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일반 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시절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토익 성적 재취득을 위해 1달 정도 영어 공부하였고, 첫 번째 1차 시험은 회계학과목의 과락으로 불합격하였지만, 다음 해에 1차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원재훈 교수님 덕분에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의 합격에 취해 2차 시험공부를 게을리했고, 첫 번째 2차 시험(동차, 평락)은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예(평락)와 3차(세법학1 과락)를 지나서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원재훈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커스 세무회계와 세법학 유예 1기 기본강의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느낌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4번째 2차 시험만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총 5년 걸렸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보다 다소 긴 수험 기간이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니 느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유명 학원의 스타강사라 하더라도 본인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학원 또는 교수님과 본인이 잘 맞는지 맞지 않는 지의 판단은 2차 시험 유예 시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예 시 본인이 공부에 게을리하지 않고 충분히 공부에 매진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수험 기간을 갖다 보니 다른 수험생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차 과목 문제풀이 방법

2차 시험 중 회계학 1부와 2부의 경우 문제를 푸는 순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하므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안지에 문제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점수 획득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어렵고 생소한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 자신 있는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시험지 파본 검토할 때에 본인이 자신 있는 챕터의 문제를 선별하시고 푸는 순서를 미리 정하셔서 시작종이 울림과 동시에 마음 속에 정해 놓은 문제를 푸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문제를 많이 풀어 오셨다면, 실제 시험의 총 4문제 중 문제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의 경우 상 중 중 하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특정해의 특정과목이 폭탄과목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난이도 하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며, 그러한 문제는 모든 수험생이 고득점하는 문제이므로 실수없이 풀어야 합니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시고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

세법학 1부와 2부의 경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라도 적으셔야 합니다. 소설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적으셔야 단 1점이라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합니다. 또한, 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든 문제가 새롭고 모든 문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해 지실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보실 때 실제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푸실 것을 강조 드리며, 모의고사는 되도록 실강반을 등록하셔서 학원에서 실제 시험처럼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 모의고사 취득 점수가 실제 시험의 취득 점수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개인적으로 수험생 생활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비 세무사님들께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털고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신적, 육체적 누적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총 수험 기간을 정하셔서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붙어서 털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후회 없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안 좋더라도 후회 없는 수험생활이었다고 공부 원 없이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스스로를 단련시켜 조금씩 단단해지는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고통과 외로움의 싸움에서 이겨 내셨으면 합니다.

고통과 외로움의 싸움에서 이겨 최종합격으로!
최원석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윤제 세무사

"교수님들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주셨기에 순발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수험동기]

저는 일반 IT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환경, 복지, 인간관계 등 만족스러운 나날이었으나 '미래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20대 후반이 되자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가끔씩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회사 담당 회계사무실과 통화를 하면서 '나도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마침 친한 친구가 회계사 준비를 시작하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저도 전문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영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고 과목이 적어서 세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

합격하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짧지 않았습니다. 유예 시험 보기 한 달 전, 질병으로 유예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다시 1차를 본 후 유예로 합격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위 합격자에게 물어보니 평균 수험기간이 4년이라 하여 나만 녹록치 않은 시험이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고 한숨 돌렸습니다.

[해커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

저는 대상포진을 앓고 난 뒤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없고 잔병치레가 잦아져 가까운 곳에 있는 학원을 선호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집중도가 낮아지고 집중하는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커스는 강남에 있어 제가 사는 지역에서 훨씬 접근하기 편했습니다. 이동 시간도 줄어 그 시간에는 틈틈이 판례를 보거나 잠을 잘 수 있어 좋았습니다.

교수님들의 변화무쌍한 문제출제로 인해 얻은 순발력

유예3기의 경우 회계학2부는 **해커스 연구원과 원재훈 교수님, 이훈엽 교수님이 주별로 돌아가면서 모의고사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는 체력이 부족해서 그럴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각 교수님들께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 주셨기에 항상 변화무쌍한 문제를 접하고 순발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소감]

아직도 세무사 님이라 불러 주시는 주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갓 땄을 때 느낌인지라 어안이 벙벙합니다.제 스스로를 항시 의심하면서 고통 받던 시간이 끝나고 결실을 맺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3차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법은 조문이 적기 때문에 출력해서 수시로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08년도부터 작년까지의 기출문제를 풀고 갔습니다. 자주 틀리는 판례나 기출의 경우 따로 편집하여 자주 읽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양이 적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므로 기출을 많이 보고 가면 고득점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세무사 기출 어플이 있어 오며 가며 풀었습니다. 최소 20분-25분 내 풀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암기력을 최소화하는 방법

재정학의 경우 계산문제만 따로 출력해서 자주 풀었습니다. 'DWL 구하기' 같은 전통적 계산문제가 주로 나오므로 문제를 보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준비체조처럼 회계학 공부 전, 세법 공부 전, 공부 마무리하기 전 등등 풀었습니다.
이론은 기본서를 보고 서브노트를 만들어 암기를 하여 휘발이 적었습니다. 재정학도 최근 기출의 지문을 재 반복해서 내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출 5개년을 보고 가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세법학을 공부하고 나서 보면, 기타 세법을 제외하고 객관식을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조처법의 경우 가족들과 문답하는 형식으로 암기했고 국조법, 국징법은 객관식을 1일, 3일, 5일 이후 3회 이상 풀어 휘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틀린 부분은 문제 옆에 틀린 회수를 체크하여 자극 받고자 하였습니다.

재무와 원가는 시험시간 내에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가늠해야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알려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자주 보아야 실제 시험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 나오는 사이즈의 객관식 책이 아닌 유형별, 주제별로 정리된 얇은 객관식 한 권을 계속 돌리고, 틀린 것을 더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1. 주력과목 공부법 및 취약과목 공부법

유예 이상이신 수험생은 회계학 1, 2부 고득점이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열쇠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세법학의 경우 항상 같은 교수님께서 출제와 채점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글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 1, 2부는 답이 명확하므로 시험 후 3개월 동안 나의 합격을 예측하고 다음 공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계학 1, 2부를 고득점하고 세법학 1, 2부는 50-55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취약과목 또한 회1, 2부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ㄱ. 어떠한 과목이든 기본서를 2차에서 더 자주 보기

2차는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2차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지만 막상 풀어보면 점수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상단 문제에서 계산된 금액이 하단에서 고려되기도 하고, 자그마한 정보가 누락되어 풀이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원가와 재무는 가끔씩 말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따로 공부하고자 하면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서 다독은 계산문제와 말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2는 범위가 넓고 많으니 기본서 다독으로 휘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차까지 문제 양치기를 하였고 제대로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모의점수가 계속 우하향하였고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해커스의 이훈엽 교수님께서 기본서 다독을 강조하셨고 그대로 실행 후 모의고사 점수가 훨씬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이훈엽 교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ㄴ. 틀린 문제 자주보기

저는 회2가 계속 39 과락이었고 원가는 56기 때 한 문제를 아예 0을 받았습니다.

회2는 기본서 다독 및 특수파트 자주 보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에 플래그로 표시해 놓고, 어떤 과목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겸용주택의 양도, 매입세액공제 큰 문제, 감가상각특례 등 제가 부담되고 자주 휘발되는 파트를 자주 보아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서는 다독할수록 회2 모의점수가 상승하였기에 정말 강추합니다.

2. 과목별 학습비중

저는 원가(관리)〉회2〉재무〉세법학 순으로 비중을 정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플래그가 표시된 문제는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 무조건 풀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가와 회2 플래그가 꽤 많은 편인데 둘 다 만족스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법학 학습비중이 적었던 이유는 저는 이미 유예시절에 법령의 대략적인 암기를 끝내 놓았기 때문에 가끔 한 논제에 대해서 잊지 않았는지 확인용 필사를 하고 판례를 읽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세법학 모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세법학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시험은 성실하게 끝까지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수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자신의 내공으로 쌓여있고 언젠가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시길 기원합니다.

든든한 교수님을 믿고 따라
최종합격으로!
이윤제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김미연 세무사

"기본 강의, 교재와 판례세법 특강을 무한 반복하여 읽다보면 판례 마스터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안녕하세요! 제57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김미연입니다.
저는 세무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합격까지 걸린 시간은 3년 6개월입니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항상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좋은 친구들, 가족들이 있었고 **언제나 빠이팅 넘치는 원재훈 교수님이 계셨기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재훈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가는 해커스의 커리큘럼

저는 대학에서 배운 기본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강의는 듣지 않았고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에서 객관식종합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커리큘럼을 따라 1차 시험 합격 후 동차반, 유예과정(기본반, GS반)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회계학개론]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집 한 권을 정하고 그 문제집을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해커스의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저는 항상 실전 연습을 위한 모의고사에서도 원가관리회계를 먼저 풀고 비교적 취약과목인 재무회계를 나중에 풀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의 경우 1차 시험공부를 할 때 한번 제대로 틀을 잡아 놓는다면 2차 시험까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와 2차 간 난이도 차이가 크게 없는 과목이어서 객관식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객관식 주말 GS도 수강하여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관리와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세법학개론]

다독할 수 밖에 없는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 엔딩을 다독하였고 객관식 세법 책의 모든 문제를 최대한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말문제는 지문 하나하나 체크하며 틀린 것은 O,X로 타이핑으로 정리하고 막판에 이것만 보았습니다. 계산문제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되, 최대한 얕고 넓은 범위를 가져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학 & 행정소송법]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해 나가면서 학원에서 기출 문제 풀기 스터디를 활용하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과목의 경우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의 경우 기본서 이론 정독 후 파트별로 문제 풀기를 반복하였고, 시험이 가까워질 때쯤 기출문제를 반복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10개년도 기출문제를 1회 분당 20분 내에 반복적으로 풀었고 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반복하였습니다. 재정학과 행정소송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노력했고 어렵고 많은 양의 세법에 가장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회계학 1부]

재무회계의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해 분개를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웠지만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반복해 나갔습니다.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반복하며 계속 전수로 반복하여 풀다가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틀린 문제만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해답에 자신만의 계산 틀이나 헷갈리는 이론들을 적어 두는 방식으로 공부해 나갔습니다.
원가관리회계의 경우 1차 때부터 열심히 해놨기에 연습서 문제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는 유예 때까지도 과락으로 힘들어하던 과목이었습니다.
요약서와 연습서를 반복하되, 자신만의 계산 방법을 필기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필기노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계산 구조가 이해될 때도 있었고, 단순 암기의 경우에도 스스로 정리해 보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차 때는 연습서를 중점적으로 공부했고 **실전 감각과 개정사항 등 중요한 부분은 유예 GS로 배워 나갔습니다.**
기본이론과 연습서 문제 반복에 집중하여 기본을 쌓아 둔 덕분에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커스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랐습니다.

김미연 세무사

[세법학 1부]

세법학 1부는 우선 이해력과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하여 듣고 싶은 원재훈 교수님 강의

원재훈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며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법학을 공부해 나갔습니다. 기본강의, 교재와 판례세법 특강을 무한 반복하여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판례 마스터가 되어있을 겁니다! 또한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은 최대한 교수님의 답안지와 비슷하게 외우려고 노력했고, 저만의 말을 만들어내서라도 외웠습니다.

[세법학 2부]

세법학 2부에서는 암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비중이 제일 높지만 가장 어려운 부가가치세의 경우 암기력과 이해력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법령을 보고 외워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방대한 양의 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고 최소한 외울 수 있는 만큼만 의의, 취지, 요건(2-3개) 등을 저만의 방법으로 타이핑 쳐서 정리하였고 매일 프린트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눈에 최대한 익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예기간에는 세법학이 재미있고 자신 있었던 과목이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3차 기간에는 회계학 고득점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계학 1, 2부의 공부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해커스 강의, 해커스 교수님

꼭 추천하고 싶은 원재훈 교수님 강의

저는 원재훈 교수님의 모든 "세법" 강의를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실력이 많이 오르게 된 시점은 원재훈 교수님을 만나고 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객관식반부터 계속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 강의만으로 세법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싫었고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덕분에 세법의 매력과 재미를 알게 되었고 실력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의 실무 경험들과 재치 있는 수업방식들에 반하여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세법학의 경우 유예 기본강의로 이론을 다진 뒤 중요한 판례, 교수님만의 모범답안 등을 통해 실전 연습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암기 위주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원재훈 교수님만의 방식을 꼭 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커스 교수님의 이해위주의 강의를 듣고 최종합격!
김미연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홍순호 세무사

"원재훈 교수님 암기하지 않는 강의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저는 학교 다니면서 1년 반, 휴학하고 1년 반 총 3년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수업을 대부분 회계 쪽으로 들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시너지가 났습니다. 학점도 잘 챙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는 시험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험은 19년도에 1차, 2차를 봤고, 20년도에 유예 2차를 봤습니다.
첫 2차 때 세법학 때문에 시험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세법학에 대해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배님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해커스 세법학을 추천받았습니다.**

선배님도 추천하는 해커스 세법학 강의

실제로 저처럼 세법학 때문에 고민 많았던 선배님이 해커스 세법학을 듣고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법학이 가장 큰 고민이었기 때문에 1기부터 시작해서 2기, 2.5기, 3기, 기출특강, 판례특강까지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다 들었고,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는 다 풀어봤습니다.

비록 세법학을 고득점한 것은 아니지만, 3기가 끝난 시점에서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원재훈 교수님 특유의 암기하지 않는 세법학 강의는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올해 시험에서 세법학 1부에서 암기 문제가 나와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것 외울 시간에 재무회계, 세무회계 한 문제라도 푸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법학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수험생이시라면 꼭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드립니다.**

요번에 회계학이 고득점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세법학 투자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 한 달 정도는 세법학을 하루에 2~3시간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 외 시간을 전부 회계학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 중심'의 강의였기 때문에 막판에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시험뿐만 아니더라도 **원재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사로 업무를 진행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저는 유예합격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학습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던 **시행착오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법학 목차 짜기나 통째로 암기하지 말기입니다.

시행착오의 결과로 얻은 합격비법

저도 첫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합격수기를 많이 읽었었는데 그중에 눈에 띈 것은 목차 짜기와 그냥 다 암기해 버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다가 시험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시험 추세가 2015~6년을 기점으로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통 암기 문제가 나오면 목차를 잘 짜야 서술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목차 짜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트렌드가 판례나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석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공부했습니다.

실제 실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것입니다. 원재훈 교수님 모의고사를 풀 때 교수님 실무 케이스를 각색해서 문제로 내신 적도 있습니다. 즉 달달 암기가 아니라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암기 문제도 나오지만 저는 요번에 상속세 문제를 취지 빼고 통째로 소설을 썼는데도 55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세법학은 50~60점 대는 맞기 쉬운 편이지만 70점 대와 같은 고득점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고득점은 무조건 회계학에서 노리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통째로 암기하는 것 역시 비추천 드립니다. 처음에 모의고사를 서술하다 보면 엉망으로 쓰는 나의 답안지를 보고 모범답안이나 법령을 암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될 텐데 그거 다 암기해도 다 까먹습니다. **1문제를 암기하는 것보다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자주 풀게 되면 겹치는 키워드를 알게 되고 안 외워도 저절로 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는 꼭 학원에서 시간 재고 풀기입니다.

저는 첫 2차 때 모의고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세법학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커스가 실전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줬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다 똑같지만 처음에 세법학을 접했을 때는 진짜 다른 세계로 느껴질 정도로 이질감이 엄청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세법학만큼은 꼭 손으로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소설을 분명히 써야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든 1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봐야 소설도 잘 써집니다. 실제로 요번에 지점세 문제가 나왔는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소설을 썼는데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험 볼 때 맨 마지막에 풀면서 남아있는 시간동안 최대한 쓸 수 있는 말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저는 이 합격수기를 쓰는 시점에 곧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무사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수험생 때 태도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험생 때 배우는 것은 세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된 이후에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험생 때 세법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 자신을 객관화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것을 고쳐 나갔고 공부하기 전과 공부 후의 저는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세무사공부를 하기 전에 합격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 때 느꼈던 것은 시험이 굉장히 쉬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합격 후에는 과거가 미화되기 마련이고, 수험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붙고 동기들을 만나면서 많은 세무사들을 만나보았는데 20대는 찾기 힘들 정도고 정말 엄청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세무사자격증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자격증이 아니다보니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동차, 유예로 합격하는 사람은 소수에 가깝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max 2년이었고 동차할 마음가짐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도전하기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안됐다면 여유를 두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실전감각을 익히게 해준 해커스 고맙습니다!
홍순호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하나 세무사

"이때 실강을 듣지 않았더라면 합격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57회 합격한 이하나라고 합니다. 훌륭한 점수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수험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었던 합격수기 글들을 생각하며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활의 시작]

대학 졸업 후, N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의 고충을 몸소 느낀 뒤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하고 난 뒤, 28살이 되던 해 세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합격까지의 기간]

처음 시작부터 합격까지 꽉 채운 4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가 게임에 빠져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5개월 및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였던 7개월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합격소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옆에서 응원해주고 믿어 주신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자주 연락하지 않고 종종 기프티콘으로 응원해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합격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같은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도 매우 감사합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공부경험이 없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자

공부 습관을 잡는 방법

제 주변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어, 엉덩이를 붙이는 것부터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부습관이 잡혀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부습관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따라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스터디 활용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저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차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2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회계학 1/2 연습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범위를 정해 스스로 풀어오고,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뽑아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같은 범위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 실력을 쌓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교수님 활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주신 교수님

2차를 두 번 치르는 동안,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게시판에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거의 한 달 이후에 답변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제대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 혼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원재훈 교수님의 경우 질문을 남기면 하루 안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후에는 거의 몇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어물쩍 이해한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재훈 교수님은 제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시험에 다가올수록 질문을 더 많이 자주 했는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강의 여러 번 듣기[세법학]

2020년 초 세법학을 수강하였고, 그 후인 5월에 또다시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한 번 듣고 100%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강의에 시간제한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틀어놓았고 최대한 어려운 단어들을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공부기간[상세]

2017년 1월 ~ 4월 :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과는 달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 건성건성하였고 결과는 당연히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져 9월까지는 책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 2018년 4월 : 정신을 차려보니 1차가 7개월 남은 시점이었고, 그때부터 1차만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2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1차 과목에만 집중하였습니다.

2018년 5월 ~ 2018년 8월 : 1차 합격 점수가 나온 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우 열심히 했던 시기입니다. 해당 기간에 원재훈 교수님을 조세특례제한법 강의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원재훈 교수님 강의 덕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부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회계학 2부 과락이 났고 다른 과목들은 합격 점수에 가까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2차 시험 직후부터 3개월은 여행을 다니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이 시간들이 매우 아깝게 느껴집니다.

2018년 12월 ~ 2019년 8월 : 동차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유예기간을 매우 안일하게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패착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때, 이해가 아닌 암기의 방식의 세법학 공부를 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 2020년 3월 : 시험이 끝나고 3주 뒤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예인데 떨어지지는 않겠지'라는 이상한 생각과 '어쩌면 붙겠지'라는 생각을 하였고, '어쩌면'이라는 생각에 이 기간 또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탈락 결과를 보니 너무 아쉽기도 하였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탈락 이후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고, 서점에 가서 모든 교수님의 세무회계와 세법학 책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실려 있는 책이 저에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원재훈 교수님의 세무회계와 세법학 책을 선택하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2020년 4월 ~ 2020년 12월 : 일을 그만둔 4월부터는 매우 의욕 넘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세무사 시험은 2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1차 준비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5월은 매우 게으르게 보냈습니다. 6월 원재훈 교수님의 특강이 개설되었고, 특강을 실강으로 결정하면서부터 다시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원까지 대략 한 시간이 소요되어 강의를 들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는데, 이때 실강을 듣지 않았더라면 합격과 멀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때는 2차 시험을 한 달 가량 앞두고부터 입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만, 5일 공부하면 하루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거나 하는 등 병원에 자주 갔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마음먹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붙을 때까지는 이기적이더라도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체력 관리법]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는 러닝 머신을 30분이라도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운동을 하지 못했고 기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수액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활용하기]

목표는 합격입니다. 본인의 합격을 위해 학원선생님, 스터디원 누구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원재훈 교수님과 전혀 일면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버티다보면 언젠가 됩니다. 버티세요! 화이팅!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해커스 교재로 최종합격까지!
이하나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은혜 세무사

"2번의 실패를 한 후, 원재훈 교수님 강의를 추천받고 해커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서 회계사와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세무사가 보다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총 수험기간은 4년 정도 됩니다. 처음 2년은 세무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생활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무작정 유명하다는 강의를 듣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번의 실패를 한 후, **원재훈 교수님 강의를 추천 받고 해커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추천받은 원재훈 교수님 강의

나만의 학습 방법

1) 생활루틴

저는 우선 월~일까지 매일 공부를 하되 주말에는 5시까지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후의 시간에는 산책을 하면서 그날 공부한 것을 다시 떠올려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는 줄넘기와 검도를 하고 독서실에 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 학습계획

저는 한 과목을 우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과목씩 추가해서 마지막에는 4과목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계획을 월 단위로 짰습니다. 적어도 이 달 안에는 어떤 과목의 어느 파트까지는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면 정해진 달 안에서 유동적으로 저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목표를 완주하였습니다.

3) 공부 순서

우선 재무회계를 탄탄히 한 후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3달 정도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만 반복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세무회계를 추가했습니다. 세무회계에서 법인세를 공부할 때는 회계와 세법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재무회계도 관련부분은 찾아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학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4) 시기별 학습과정 (이번에는 시험이 연기되어서 과목당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12월 재무회계
1월~2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3월~4월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5월 세법학(혼자서 작년 판례특강과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풀이)
6~7월 해커스 판례특강, 2.5기 모의고사, 기출 풀이 특강, 기본강의 빠르게 다시 듣기
8월 전과목
9~11월 유예3기 전 과목 공부

5) 전과목 공부 시 배분

전 과목을 공부를 할 때는 우선 하루에 각 과목별로 시간을 배분하였습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는 각각 1시간 30분, 세무회계는 법인세 1시간, 소득&부가세 1시간, 세법학은 문제 풀이와 그에 대한 리뷰 및 관련 부분 기본서 찾아보는 것까지 총 3시간 30분을 할당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과목마다 주제별로 묶어서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하루에 문제를 푸는 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해진 주제를 다루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1문제를 풀 때도 있었고 6~7문제를 풀 때도 있었고 그날 그날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짚고 넘어갔기에 하루에 문제를 푸는 양으로 보면 편차는 있었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합격비법을 공유하다

재정학과 행정소송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로 1차를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재정학과 관련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 행정소송법과 관련해서는 판례에 관한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이나 행정소송법이나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유형화되어서 출제하는 문제가 7~8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시생이면 물론 기본강의를 듣고 준비해야겠지만 3차생이시라면 기출을 돌려서 루틴하게 유형화되어서 출제하는 문제만 파악하고 들어가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과 세법에 관해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학과 세법은 1차에서도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세법은 말문제가 시간 대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문제를 먼저 공략하고 계산문제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풀었습니다.
2교시의 회계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교시 때는 선택법 40문제를 15분~20분 안에는 무조건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50분을 회계학에 투자하였습니다. 50분 안에 27문제를 정확하게 푼다고 생각하고 항상 훈련을 했습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1) 회계학 1, 2부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위주로 논리를 이해할 때까지 풀기,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원가관리회계: 강경태 연습서 강의

세무회계: 해커스 연습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풀면서 그 논리가 납득이 되고 스스로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또한 공부를 할 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원가관리회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는 이것이 뭔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성품 환산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하루 종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지만 정말 가슴 깊숙이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2) 세법학

믿고 따라가는 원재훈 교수님의 커리큘럼

원재훈 교수님의 기본서, 판례특강, 기출문제 풀이, 유예3기 커리를 쭉 탔습니다.
혼자서는 판례특강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읽고 스스로 쟁점을 뽑아내고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흐름을 목차 위주로 짧게 쓰면서 계속 훈련을 하였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절대량이 확보가 되면 언젠가는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시험의 특성상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재미를 느낀다면 불안함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지식이 아닌 사고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든든한 해커스의 커리큘럼으로 최종합격까지!
이은혜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박종찬 세무사

"기본문제 위주로 나오는 원재훈 교수님 연습서만 반복했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57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박종찬입니다.
저는 2016년 공부를 시작해서 2020년 2차 시험 합격까지 4년 반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전문직을 하고 싶어서 세무사가 되기로 선택하고 퇴사 후 공부를 시작할 때는 금방 합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을 따라서 해커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해커스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은 없어진 종로의 학원을 다니다가 원재훈 교수님을 따라 간 것입니다. 유예 탈락 후 해커스 학원에 처음 갔을 때는 회계학 2부와 세법학 유예 1기 실강을 들었고 모의고사 반은 유예2,기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그후 4차 시험을 공부할 때는 회계학 2부, 세법학 유예 1기를 인강으로 듣고, 유예 2기 세법학과 유예3기 종합반을 학원에서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되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멘탈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2021년 2차 시험이 반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번에 불합격한 분들도 합격하셔서 올해는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저는 3차 시험 때 1차에 떨어질까 재정학과 행정소송법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게 3차 시험의 탈락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1달 반 정도를 준비했는데, 1차 준비는 3주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행소와 재정학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70점 대는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80점 대로 올리기보다는 회계, 세법을 1, 2차 병행하며 4과목을 70점 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3차생에게 더 맞는 수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2차 점수 발표 후 수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3차생이 1차에 긴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차 탈락 후 12월부터 회계학 1, 2부는 모의고사 풀이 스터디를 시작했고, 세법학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3차 시험을 준비하며 현금흐름표와 고급회계를 준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현금흐름표가 나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4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중급회계는 상하 모두와 고급회계(지분법, 연결, 합병, 환변동)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다 공부하고 나니 시험장 갈 때 회계학 1부는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연습서로 반복학습

회계학 2부는 원재훈 교수님 1기를 들은 후 연습서 하나만 계속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주변에서 최소한 연습서 2개는 번갈아가며 풀어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은 연습서는 더 혼란스럽기만 해서 **기본문제 위주로 나오는 원재훈 교수님 연습서만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이 방법을 하며 '아 이러다 복잡한 문제 나와서 못 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 기본문제 위주로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찾아서 정확하게 풀자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원하던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논란이 있었던 연금 한도나 합병비율 등 다른 교수님 강의 수강한 적도 없어 배운 대로만 했더니 모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원재훈 교수님

회계학 2부는 오답노트를 만들며 공부했습니다. 문제 전체를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틀렸을 때 '근로소득금액 구할 때 소득공제 빼먹지 말 것' 이 정도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연습서를 2회독 정도 하니 노트만 봐도 어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이 노트만 들고 들어가서 1교시 끝나고 노트만 읽으며 2교시를 대비했습니다. **세법학은 유예1~3기 모두 해커스 원재훈 교수님 강의 수강했습니다.** 사실 2019년 회1 점수가 낮아서 탈락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회계학에 집중해서 세법학 수업은 계속 들었지만 공부비중을 낮췄기 때문에 3차보다 4차 때 세법학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대신 공부비중을 낮추기로 하고 세법학 1기를 들으며 기본서를 요약해서 저만의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모의고사를 보며 부족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2020년 공부를 하며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술 스터디 후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집합 금지로 그나마 못 한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참고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나도 되겠지. 올해는 운이 없었어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는 나이도 있고 공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무조건 붙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친구들이 '너는 올해 열심히 했잖아 잘 될 거야'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이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한 애들한테 해줬던 말이었고 그 친구들은 먼저 합격해서 세무사가 됐습니다.
저는 독서실에서 집에 가고 싶을 때나 침대에 그냥 눕고 싶을 때, 3차 시험 떨어진 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 놓은 글을 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남은 6개월 슬럼프 없이 공부하시고 후회 없이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해커스 교재 반복학습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박종찬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준원 세무사

"세법이 재밌게 느껴져 즐겁게 이 공부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세법을 재밌게 만들어주신 원재훈 교수님

57기 합격생 이준원입니다. 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부하기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훈 교수님을 만나 너무 지루하고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던 세법이 재밌게 느껴져 즐겁게 이 공부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방법

[유예 1기] 세법학, 세무회계 실강 수강

세법학 수업 중 교수님이 나누어 주신 필수 암기와 서술형 문제를 친구들과 스터디하였는데 세법의 기본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엔딩이란 책이 2차 전용 요약서이다 보니 처음 보면 내용이 빠진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100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엔딩 책에 수록된 필수 문제가 정말 좋아 내용을 정리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유예2기] 회계학2부, 세법학1, 2부 실강 수강

이훈엽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이훈엽 교수님이 실제 기출 수준의 문제로 법소부 6회씩 2회독을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 학원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아 실제 기출과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훈엽 교수님 문제는 익숙한 내용의 문제를 실제 기출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응용하여 만들어진 느낌이라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문제를 풀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문제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문제는 차별화 돼있습니다. 모의고사만 열심히 봐도 세법학 과락은 안 납니다(경험담이지만 고득점을 위해 따라 하지 마세요..)
세법의 핵심을 꿰뚫는 문제에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 쓸 수 있는 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준원 세무사

[유예 2.5기] 회계학 2부, 세법학 1, 2부 실강 수강

믿고 따라가는 해커스 커리큘럼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시험에 의해 새로 생긴 커리큘럼이었는데
해당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를 할 수 있어 퍼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특강] 세법학 수강

가장 만족스러웠던 원재훈 교수님 강의

기출문제에 숨겨져 있던 교수들의 의도를 원재훈 교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강의였습니다!!!

[유예3기] 종합반 수강

시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전 과목 다 수강하였습니다.
회 1은 정말 깔끔한 문제로 유예3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회 2는 원재훈 교수님과 훈엽 교수님 그리고 실무진 교수님들이 다양한 문제를 제공해 주셔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스타일의 문제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이널 강의] 세법학 수강

원재훈 교수님이 전세목을 100페이지가 안되게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전 세목을 여러 번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며

코로나때문에 지칠 수도 있었지만 학원의 좋은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좋은 문제들로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찾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이훈엽 교수님과 멘탈이 터질 때마다 옆에서 다잡아 주신 원재훈 교수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고 따라가는 해커스의 커리큘럼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이준원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이성헌 세무사

"주옥 같은 세법학 기본서와 판례집은 세법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던 교재입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안녕하세요 평생 곡 만들고 노래하며 연주만 하다가 이번에 57기 세무사가 된 이성헌입니다. 수험기간은 17년 5월부터 약 3년 6개월 공부하였습니다.

유예로 본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 답을 다 적어와서 합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합격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며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다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번아웃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안도감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합격 발표가 5일이나 지난 지금도 불현듯 다시 연습서를 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수습처를 찾아 헤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잔잔한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그만큼 수험 기간이라는 시간은 절대 돌아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해커스 모의고사로 시간관리 연습

17년 5월에 타학원에서 종합반을 수강하였고 1차 탈락 후 재시로 1차를 합격하였습니다. 탈락 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실제 시험에서의 시간관리가 충분히 연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시 1차 시에는 **매주 토요일에 행해지는 해커스 GS 객관식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필수적인, 시간관리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시험 시작 후 첫 5분간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GS 객관식 모의고사를 통해 매번 훈련하였고 실제 시험 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 회계학 정윤돈 교수님과 모의고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전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 출제

동차의 고배를 마신 후 유예 2기, 3기를 수강하였습니다. 유예 모의고사의 특성상 작년 혹은 재작년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할 수 있음에도 교수님들께서 매년 새로운 문제들을 출제해 주셨던 점이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수고로움을 감당하신 교수님의 열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훈엽 교수님의 문제스타일을 추천합니다.

특별히 **회계학 2부 이훈엽 교수님의 문제스타일을 추천합니다. 교수님의 문제스타일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하셨는데 회계학 2부를 준비하는데 더없이 만족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실제시험에서도 풀이 시간이 10분 남짓 남아 여유롭게 시험을 치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때마다 매번 새로운 문제와 빈출 주제 및 예상주제가 적절한 배합되어 출제되 어느 주제 하나 그냥 버리지 않고 **모든 주제를 두려움 없이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게 하였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훈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 스터디, 서브노트 활용법]

보통 3개월 단위로 학습플랜을 구성하였고 역순으로 배치하여 주 단위로 표를 만들어서 전 과목을 골고루 매일매일 진행했습니다. 나만의 엑셀 표를 만들어 가시화하였고 어떤 주제가 부족한 주제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책상위에 붙여 놓고 매일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의 공부가 끝이 나면 내일 아침에 바로 이어서 해야 할 태스크들을 포스트잇에 붙여 책상 한가운데에 붙여 놓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독서실자리에 앉자 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태스크들을 실행할 수 있어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의 계획에 따라 온라인에 일정한 양의 문제 수를 정하여 업로드를 하는 스터디를(밴드 스터디 등) 만들어 시험 막판 3주 전까지 진행하였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목표 달성 전략, 과목 공부 순서, 비중, 문제풀이 순서]

매주 치르는 '모의고사에 온 힘을 쏟는다'

모의고사 점수와 등수를 엑셀에 표를 만들어 기록하였습니다. **매주 치르는 '모의고사에 온 힘을 쏟는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특별히 괴로웠고 힘들었던 시간이 유예 2기 3기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아지는 점수들을 보며 시험기간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과목 공부 순서는 하루에 전 과목을 공부하되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주제들은 1-2주 간격으로 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거나 관련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통해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만의 전략 과목화 계획, 합격 전략]

동차 시험 불합격의 원인을 파악하던 중 회계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유예기간 중에는 회계학 1, 2부를 집중적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리 쉬운 주제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주제별 난이도에 상관없이 기계적인 풀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총 수험 기간, 시간 관리법]

총 수험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수험 기간 초반에는 스스로 실력이 부족한 것이 많음을 알기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져 잘 쉬지 못하였지만 유예기간에는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15일에 하루 정도는 반나절을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공부시간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루 최소 9시간씩 매주 최소 60시간이라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반나절을 쉬어 주며 관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해커스 강의, 해커스 교수님

주옥같은 원재훈 교수님의 교재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주말 객관식 GS 강의와 유예 2, 3기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원재훈 교수님의 주옥같은 세법학 기본서와 판례집은 세법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던 교재입니다. '좋은 글은 잘 읽히는 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법학 기본서, 판례 해설집, 그리고 매주 제공되는 GS 세법학 모범답안이 그것입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세법의 법리가 이해되고 암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법학을 흔히 '암기하는 과목'이라 말하지만 **저는 단연코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암기가 되는' 과목이라 말씀드립니다.** 암기는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표현이 쉬운 글을 반복해서 읽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원재훈 교수님 덕분에 과락을 막았습니다.

저에겐 원재훈 교수님의 글을 접했을 때 이러한 효과들을 얻었습니다. 실전에서 탁월한 세법학 점수를 얻지 못하였기에 아쉬움이 남지만, **원재훈 교수님의 글과 모의고사 훈련이 없었더라면 과락을 맞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해커스 교수님의 이해위주의 강의를 듣고 최종합격!
이성헌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김민 세무사

"최근 기출과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 회계학 2부를 시간 내에 여유롭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및 합격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알아보았던 것은 학원이었는데, 세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지인이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하여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을 한 지가 오래되어 단과보다는 종합반을 들으면서 공부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처음 시작은 종합반으로 수강한 뒤 이후에는 단과를 등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원재훈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심화 세법학(세무 회계랑 함께 진행) / 동차 세법학 / GS(동차반) 세법학 /세법학 기출문제풀이(인강)을 들었고, 동차라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3기 세무회계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보았습니다.

세법에 흥미를 갖게 해주신 원재훈 교수님

처음 세법개론 책을 보았을 때, 범위도 많고 생소한 내용이 많아 공부하기 부담스러웠지만,
원재훈 교수님 덕분에 세법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차 세법학과 2차 회계학 2, 세법학 1, 2 모두 잘 끝내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인강으로 듣는 경우에는 현장 강의와 다르게 쉬는 시간 없이 빠른 배속으로 들을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모든 강의를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독 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한 번에 100%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회독 수를 높였습니다.

2019년에는 학원 수업, 인강을 들으며 독서실에서 복습을 하였고, 장기간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대신 2020년 1월부터 집 앞 독서실에서 10:00 ~ 23:00(중간 점심 1시간~1시간 30분)까지 공부하였고, 체력이 좋지 않아 주말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체력 보충을 하고, 시험에 임박하였을 때만 주말 중 하루는 4~5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쉬더라도 친구들은 만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최대한 정해진 루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차 과목별 학습 방법

재정학과 행정소송법 점수를 높게 받아 간신히 1차 시험에 합격할 경우 2차 시험 준비가 힘들어질 것 같아 중급회계나 원가관리회계에서 포기하는 파트 없이 모두 보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회계학, 세법학 계산문제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같은 책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1차 시험이 연기가 되었을 때, 연기 직후 약 2달간은 1, 2차 시험에 모두 도움이 되는 중급회계, 원가회계 연습서를 2회독과 심화반 때 배운 **세무회계엔딩 법/소/부를 다시 풀어보았고, 세법개론(노란책)을 2회 정독하며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회계학, 세법학 1차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차 과목별 학습 방법

1차 합격 후 1주일 간 휴식 시간을 갖고, 원재훈 교수님 동차 세법학을 현장강의로 듣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인강으로 들었고, 나중에는 학원에 다녀오면 오후에 너무 힘들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학원에 가지 않고 복습 동영상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히게 해주신 원재훈 교수님

GS 세법학을 수강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 원재훈 교수님께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하시며, 써보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여 연습을 위해 세법학만 토요일 오전에 가서 시험을 보고, 강평은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쳤을 때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강평을 들으며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을 점차 익히게 되었고, **서론-본론-결론에 껴 맞추는 방식이 아닌 물음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배워 연습하면서 모의고사 등수도 상승하여 처음보다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모의고사 덕분에 실전에서 잘하다.

GS 모의고사가 끝나고는 기출문제풀이 인강을 들으며 물음에 맞게 세법학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하였습니다.
회계학 2부는 각 챕터 별로 나누어진 연습서만 풀어보아 제한된 시간에 맞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여 유예3기 모의고사를 신청하여 문제를 풀어보았고, 최근 기출과 비슷한 유형의 모의고사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 회계학 2부를 시간 내에 여유롭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세법학 2 중 조세특례제한법도 원재훈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조특법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노트에 정리해놓은 후, 마지막 1달 동안 자기 직전 랜덤으로 노트에서 주제를 선정해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가는 길, 점심시간, 집으로 오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조특법 강의를 반복하여 계속 수강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농담하시는 부분까지 외울 정도로 반복하여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강의 중 말씀하셨던 사례가 나와 동영상 듣던 내용으로 답안을 쓸 수 있었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처음에는 절대적인 하루 공부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것 같아 고민이 많았는데, 본인의 한계를 넘는 정도까지 무리하는 것보다 자신한테 맞는 공부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강의에 장점도 있지만 강의 듣는 시간으로 물리적인 공부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강을 적극 활용하였고, 강의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계산과정같은 부분은 모두 스킵하며 들었습니다. 스터디를 하지 않는 것도 처음에는 불안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훈 교수님께서 학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포기만 안하면 된다'라고 말씀 해주셨는데, 시험 당일에 시험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마무리하여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포기만 안 하면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려움도 교수님과 함께하여 극복 완료!
김민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박지영 세무사

"김승철 교수님은 한국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강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학을 처음 접하시거나 점수가 마음먹은 만큼 잘 오르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격수기를 작성합니다. 제게 회계학은 수학처럼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무 관련성이 없는 규칙들의 나열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곤 했습니다만, 김승철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쉽고 재밌는 강의

김승철 교수님은 한국어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강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개념 정리는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서 한 번 이해가 되면 쉽게 헷갈리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요점 쏙쏙 강의 노트

교수님 카페에 올려 주신 강의노트가 정말 정말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하루 30분 정도 자투리 시간마다 강의노트를 계속 반복하여 보면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며칠 전 공부한 내용이 잊어버리거나 어려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고의 풀이법!

풀이법이 진짜 최고입니다. **김승철 교수님께서 개발한 풀이법들이 있는데 그 풀이법대로 하면 너무 쉽게 문제가 풀려 항상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개념을 알려주셔도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풀이법을 외우고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내용도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회계학 1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유예 합격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수험 기간보다 짧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회계학을 정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꼭! 김승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서 모두들 빠른 기간 내에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에 빠른 기간 내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박지영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김현주 세무사

"세법학개론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원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종합반'때문입니다.

2016년 11월에 기본종합반이 아닌, 객관식종합반 실강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기본이 없이 객관식종합반부터 듣다 보니 세법학개론 책을 펼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책을 보니, 외계어같던 세법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점점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세법학개론 과락률이 43.26%였던 2017년 1차 세무사 시험을 무사히 치른 뒤, 원재훈 교수님께 세법학개론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원재훈 교수님을 믿고, 2017년 동차, 2018년 유예, 2019년 3차 모두 세법은 원재훈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원재훈 교수님 강의의 특징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입체적'입니다.

원재훈 교수님은 강의에 실무 경험을 잘 녹여내 주십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해주시며 직접 하신 일이나 공개되지 않은 판례까지 수업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입체적 강의

종종 인강 마이크를 끄시기도 하는데, 실강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기업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 덕분에 주제가 더 잘 이해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가질 때쯤, 책으로 관련 이론을 덧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론이 머리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입체적인 수업이 세법학스럽게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서 2차 답안 작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것

원재훈 교수님을 만나고 '세법학 답안지'가 바뀌었습니다.

줄글로 휘갈겨 써 내려간 첫 번째 세법학 모의고사 후,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된 원재훈 교수님의 피드백

학생 각각의 답안지를 보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은 답안지가 될지 일일이 말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문장 문장 사이에 여백을 충분히 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스터디를 하니까 제 답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답지들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답안지에 여백을 줬더니, 모의고사 점수가 쑥쑥 올랐고, 제가 봐도 '보기 편한' 답안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이해위주 학습법

저는 암기를 잘 못하지만, 충분히 이해되면 이해된 내용을 글로 풀어 쓰는 편입니다.

원재훈 교수님은 외우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교수님이 외우라고 하시는 건 '기본 개념'이 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의 정의, 증여의 정의, 취득의 정의,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원칙 정도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들은 수업 시간에 수백 번 반복해 말씀하시며 같이 외우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암기에 취약한 저 같은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전을 보는 습관을 기르다

또 원재훈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법 조항을 자주 얘기해주시며, 법전 보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세법학 책과 법전을 같이 놓고 공부했습니다.
법전을 자주 보니, 법전의 체계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일부러 나누지 않아도 머릿속에 체계가 잡혔습니다.
실무를 할 때도 법전을 계속 보는데, 공부할 때부터 습관이 돼서 좀 수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하는 지

세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학생에게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유쾌한 강의

세무사 공부는 '세법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법이 어려운데 세법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법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해주는 교수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재훈 교수님 수업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게 아니라, 최신 뉴스,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녹여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매년 실강 수강생 절반이 합격하고 있을 정도로 한 번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세지

제가 시험 합격 소식을 알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되는 시험이였구나' 였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면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게 되긴 되는 걸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먼저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공부 방법을 바꾸거나 뭘 더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보다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시험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해커스 교수님의 이해위주의
강의를 듣고 세무사 시험 합격!
김현주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김진규 세무사

"세법을 고득점 과목으로 만들어 주신 원재훈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

원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샘플 영상' 때문입니다.

1차생 시절, 다른 교수님의 세법 수업을 듣다가 설명이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교수님은 어떨까 찾아보던 중 원재훈 교수님의 샘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기존 교수님과는 달리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설명이 탄탄했습니다. 특히 실무와 연관 지어 개념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세법학개론 공부를 하니,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세법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신 교수님에 대한 신뢰로, 2차 시험도 원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 강의의 특징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시험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사례 해석을 통한 세법학 학습

2차 세법학 시험의 포인트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주요 사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세 법전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례를 해석할 때 어떤 법령을 핵심적으로 써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재훈 교수님은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법령을 선별해 눈에 익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법령 통째로 암기해야 할 것들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반복적으로 읽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법 때문에,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령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것

원재훈 교수님을 만나 2차 시험 답안 작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재훈 교수님께 첫 첨삭을 받기 전, 저의 답안지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적어 내려간 답안지였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은 제게 '출제 교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핵심 키워드를 소제목으로 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논리적 답안 작성이 고득점의 핵심

교수님의 조언대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2차 시험 고득점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모의고사에서 세법학 점수가 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이해위주 학습법

시험 출제 트렌드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다면,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 세무사 2차 채점평에서, '채점 결과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암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암기해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출제 트렌드에 맞는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

원재훈 교수님은 이해위주의 세법학을 가르쳐주십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판례를 사례화하거나, 실무 상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이러한 출제 트렌드에 맞추어 시험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의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하는 지

세법학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분들에게 원재훈 교수님의 수업을 추천합니다.

세법학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공부량이 많아 수험생들을 지치게 합니다. 게다가 강의마저 지루하다면 더더욱 공부가 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고 싶은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는 다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싶은 강의입니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듣고,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세법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흥미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세지

세무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느껴왔던 과정이라 누구보다 시험 준비가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전의 저는 모의고사를 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에 뭐 잘 보지, 졸리면 뭐 엎드려서 자지 뭐, 하는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 수험 기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합격한 올 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빡세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 시간을 더 늘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식사도 최대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차곡차곡 모여 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진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 합격이라는 크나큰 행복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활동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교수님에 대한 신뢰와 노력으로 세무사 시험 합격!
김진규 예비 세무사가 직접 전하는 합격 후기
바로 확인하기 ▶

최다영 세무사

"원재훈 교수님을 만나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자기소개

56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최다영입니다.
저는 회계관련 과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도 자격증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원가, 세법을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세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는 학교 선배가 원재훈 교수님을 강력하게 추천해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해커스에서 세법학 유예 1기와 유예 2기를 수강했습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 하루 공부 패턴

처음 전 과목을 1회독 할 때까지는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를 때 붙잡고 있는 것보다 며칠 후 다시 보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1회독을 하고 나서부터는 매일 전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원가관리회계, 오후 1시 30분까지 세무회계를 공부하고 점심을 먹었으며, 9시까지는 세법학을 공부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까지는 재무회계를 공부했고 오후 11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 주말 및 휴일 관리법

토요일 점심부터 일요일 3~4시까지 쉬었습니다. 휴일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일처럼 보냈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1.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가장 골치 아팠던 과목이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연구했고 시험 막판에는 효자 과목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된
전 범위 요약정리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전 범위 요약정리입니다. A4용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요약 노트를 직접 만들어보니 재무회계가 쉬워졌습니다.

회계사 final 문제집을 푼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 사이즈가 크고 세무사 문제집보다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좋았습니다.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횟수를 반복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졌고 푸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2.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모든 과목 중 시간을 가장 적게 투입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단, 조금씩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관리회계는 2차 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본강의를 듣고 곧바로 연습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강의의 50%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공부는 두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론과 객관식 문제가 압축된 문제집을 봤습니다.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봤고 막판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3.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어렵습니다. 뒤돌면 까먹고 눈감으면 까먹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험기간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세무회계는 많이 보고 많이 푸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final 문제집을 풀면서 실력이 많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final 문제집 뒤쪽에 10회분 모의고사가 있는데 10번을 넘게 풀었습니다. 세무회계 연습서를 풀다 보면 법인세를 볼 때 부가세를 까먹고 부가세를 볼 때 소득세를 까먹곤 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풀면 매일 법소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시간 반 정도면 1회분을 풀 수 있어서 공부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4. 세법학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라는 말은 너무 유명합니다. 하지만 세무사 세법학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공부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세법학 공부를 시작한 건 2018년 9월, 약 2차 시험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멋모르고 수험생 대부분이 듣는 강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험생처럼 책을 달달 암기했고 암기 스터디도 했습니다. 세법학은 암기시험이 아닌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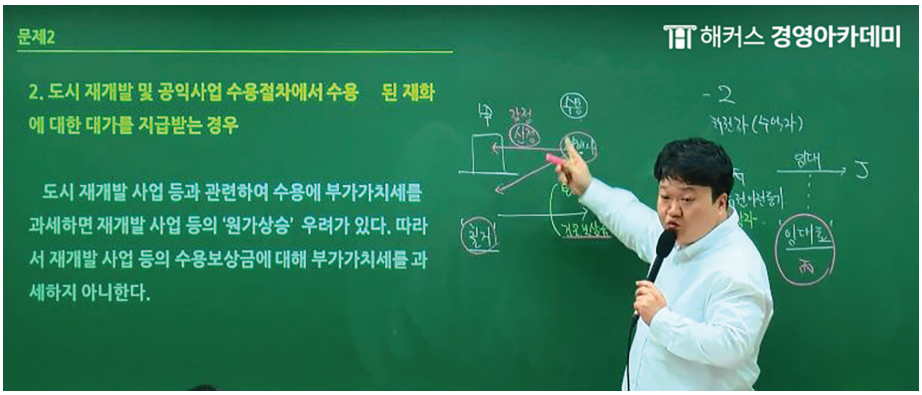
그러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를 찾아봤고 학교 선배로부터 원재훈 교수님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때가 1차 시험 3개월 전이었습니다. 유예 2기반을 들을지 아니면 1차 시험이 끝난 후 동차 강의를 들을지 고민을 하다 유예 2기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1차 시험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세법학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세법학, 이해과목이 되다

처음 강의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세법학이 암기과목이 아니라 이해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만든 문제도 정말 좋았습니다.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느낌이었고, 문제를 통해 다양한 판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스프링으로 철해 매일 봤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부족한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유예 1기도 들었습니다. 1차 때문에 미처 끝내지 못한 유예 2기문제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렇게 세법학에만 공부시간의 50% 이상을 투입하며 5~6월을 보냈습니다.



최다영 세무사에게 세법학은 이해과목임을 알게 해준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

조특법 공부는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커스에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줘서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영상을 총 네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원재훈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세법학은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각각의 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리, 즉 법리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숙지하고 다양한 판례를 접하는 것이 합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특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지, 내용, 적용대상 정도만 외운다고 생각하면 공부량이 확 줄어듭니다. 출제교수님도 세세한 것까지 외우는 걸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시험에서 원재훈 교수님이 강조했던 규정의 취지, 적용 대상, 내용만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25점 중 23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세법학은 제대로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슬럼프 없이 꾸준히 공부하고 싶다면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주 3회 요가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체력관리가 되는 건 덤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수험생보다 부족하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황다영 세무사

"믿고 따라오라고만 하신 나의 원탑 원재훈 교수님"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56기 세무사 합격생 15학번 황다영 입니다.
2학년 때(회계전공) 휴학 후, 3년간 공부했고 71/71/55/56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학원 선택과정과 유예 당시 공부방법을 수기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긴 글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원 선택 과정

처음에는 메이저 학원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긴 수험기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많은 고심 끝에 해커스를 선택하고 학원 이동 없이 쭉 다녔습니다.

해커스를 선택한 이유

(1)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체계적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님
(2) 쾌적한 자습환경
(3) 세무사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4) 강의, 교재, 모의고사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원과 교수님

특히 원재훈 교수님은 세법학, 세무회계 강의 준비에만 수험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셔서 교수님 반만 따라가자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3년 동안 슬럼프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훈엽 교수님은 세무사 출신으로 유예2기 때 전 범위 2회독, 유예3기 때는 전체 전 범위 모의고사 진행 등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셔서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서의 중요성

기본서 위주의 학습법

1. '객관식반에서 다시 할 테니 기본서는 쉬엄쉬엄...'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세법개론과 중급회계 기본서를 위주로 학습하라는 이야기는 늘 들어왔지만 1차 때 기본서를 수업시간에만 대충 보고 스스로 요약노트를 만들어 그것 위주로만 학습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는 동차와 유예 때 커다란 좌절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1차 기간에 기본서를 2회독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차분들도 절대 안 늦었으니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3개월 동안은 주로 기본서만 봤습니다.

2. **기본서를 보는 방법**

세법개론 – 가장 하기 싫었던 단원부터 정독, 예제풀이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 전 범위 기본서(중급회계, 고급회계)를 계산방법보다는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목적으로 정독, 예제 전부 풀기

과목별 학습법

1. **세법학**

원재훈교수님의 모범답안 교재

세법학은 원재훈 교수님 덕분에 법령을 보는 방법, 판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별하지 않고 오로지 원재훈 교수님 책 두 권을 통 암기하겠다는 목표만으로 공부했습니다. 책이 모범답안 느낌으로 목차부터 논리전개 흐름까지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요약서를 안보는 제 공부방식과 잘 맞았습니다.

유예 2기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난이도로 출제하셔서, 실제 당일에 '뭐지 교수님이 내신 건가?'하는 익숙한 느낌으로 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험 한 달 전 구술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사진인증으로 진행하는 '원재훈 교수님 책 3회독 스터디'를 만들어서 시험 전날까지 독서실에서 책을 정독했습니다.

실무에 입각한 문제풀이 '절대적 틀'

2. 세무회계

유예 1기 강의는 원재훈 교수님께서 실무에 입각한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것을 '절대적 틀'이라고 부릅니다. 실무기반으로 수험영역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방식이라 이번 시험에서 실수 없이 풀 수 있었습니다.

유예 2기는 이훈엽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를 풀었고, 타 학원 모의고사는 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법소부 전 범위 2회독 커리큘럼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예3기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님들께서 직접 출제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시험에 적합한 난이도와 다양한 유형을 담은 양질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모의고사는 봉투로라도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 재무회계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기에 연습서보다 기본서 예제를 많이 봤고 마지막 날까지 돌렸습니다.

따라 하고픈 풀이법이 담긴 교재

4. 원가관리회계

강경태 교수님의 빨간 연습서만 풀었고 동차 때부터 이것만 풀었으니까 20회독은 더 한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하부터 최상까지 다양하고 똑같이 따라 하고만 싶은 풀이로 구성되어있는 책입니다. '하루에 몇 개 풀기' 스터디를 꾸준히 했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예전에 합격하신 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어지는 여러 번의 기회 중 한번 자기에게 맞는 시험이 찾아온다고, 그때 합격하면 되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때부터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만 하신 나의 원탑 원재훈 교수님, 부모님, 언니 오빠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강지원 세무사

"원재훈 교수님은 법의 이해 깊이 차원이 다른듯해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3차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처음에 세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없었지만, 제대할 때,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년이 없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법에 대한 흥미가 있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수험기간은 34개월 걸렸습니다.

해커스 경영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주변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원재훈 교수님 세법학 강의를 듣게 되었고, 원재훈 교수님 수업에 매료되어, 올해 유예 2, 3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학습 방법

체계적 학습을 도와주시는 교수님

1차 전략 과목은 세법, 회계여야 하고, 계산문제를 버리고, 말 문제만 준비해 가시는 것도 장수생의 지름길입니다.

힘들어도 세법, 회계를 전략과목으로 만드셔서 최대한 수험생활을 짧게 만드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계가 어려워 많은 고생을 했지만, 부족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저희는 재정학, 행소법을 잘하기보다는 세법, 회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훗날 세무사가 되었을 때도, 훨씬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회계학 1부

회1은 자신이 없던 과목이라, 시간 대비 그렇게 많이 투입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재무 4문제, 원가 4문제씩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유예 2, 3기는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감을 안 잃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도 나름 비중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학 2부

회계학 2부는 나름 자신이 있던 과목이라, 시간 대비 투자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유예 2, 3기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스터디원을 구해서 매일 10문제 정도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실전처럼 문제풀기

마지막에, 저는 기본이 조금은 탄탄해서 원재훈 교수님의 세무회계 강의를 1.6배속씩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계속 돌리고, 시험 이틀 전 및 직전 날에는 3년치 기출문제 위주로 한 번씩은 다 보고 풀어 봤습니다. 세무회계는 기출문제 위주로, 기본기를 쌓으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전처럼 문제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강의를 추천한다면 원재훈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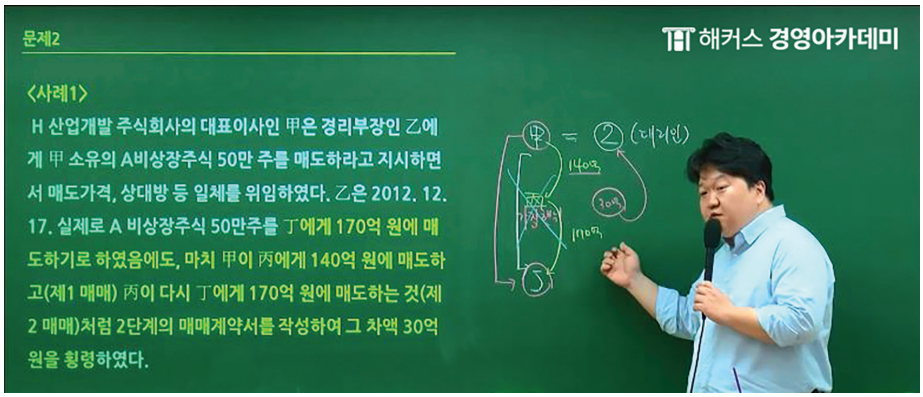
세법학 1,2부

저는 유예 때 세법학 점수(세1-56점 세2-48점)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 아는 지인의 권유로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원래는 스터디 가이드만 들었던 터라 강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있었지만,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매번 스터디 가이드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애매, 저거 애매한데 그냥 외우자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속속히 이해됐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추천합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감히 말하지만, 법의 이해 깊이가 차원이 다른 듯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친절히 답해주시고, 일일이 판례도 찾아서 확인해 주셔서 완전 감동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원재훈 교수님

저는 저의 수험기간에는 솔직히 원재훈 교수님이 정말 유명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면 좋은건 나 혼자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이제는 합격했으니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을 주변에 권유하고 다닙니다.



강지원 세무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원재훈 교수님의 강의

공부방법(세법학 1, 2부)

저는 유예 1, 2, 3기를 원재훈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는 법령 쓰기 스터디를 진행했고, 5월에서 8월까지는 유예 2, 3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또한, 조특법은 5월에 시작하면서, 노트북으로 법령 쓰기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치기 전날에는 원재훈 교수님 유예2, 3기 문제를 다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전날 원재훈 교수님 유예2, 3기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전부다 나와서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문제를 풀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원재훈 교수님"을 외치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점수는 세1 61점, 세2 50점을 받았습니다.

후배 예비 세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요점을 말하자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덜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전략과목을 만드시고, 회1, 2는 계속해서 푸시는 게 좋고, 회2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기본기를 쌓아나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정말 원재훈 교수님 강의 추천드립니다. 세무회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훈 교수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 제 아는 지인이 추천했을 때 조금은 걱정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나 짧은 생각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법은 원재훈 교수님 따라가시고, 공부할 때 스터디 사람들과 공부방향이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사람관계 생각지 말고 본인의 짧은 수험생활을 위해, 곧바로 다른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공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논리를 알면
합격이 보입니다.

재무회계의 시작은 해커스 세무사입니다.

2
PART

꼭 알아야 할 세무사 시험 최신 정보

01 세무사란?

1) 세무사의 직무와 전망

02 세무사 최신 시험 정보

1)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2) 시험일정 및 과목

3) 어학성적

4) 시험 일부면제

5) 합격기준

6) 합격 통계

03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1) 세무사 시험제도

2) 세무사 학습방법

3) 학원 VS 온라인

01. 세무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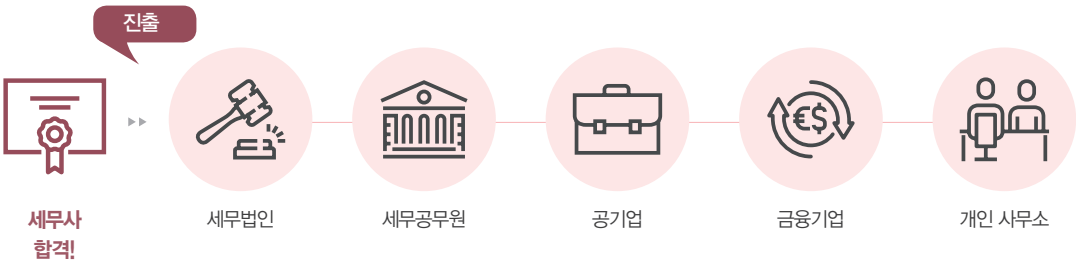
1) 세무사의 직무와 전망

세무사의 정의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세무사 취득 후 진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의 인원은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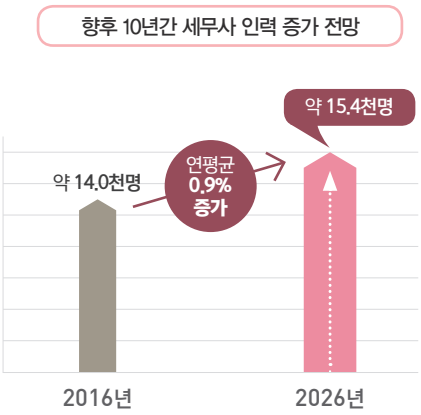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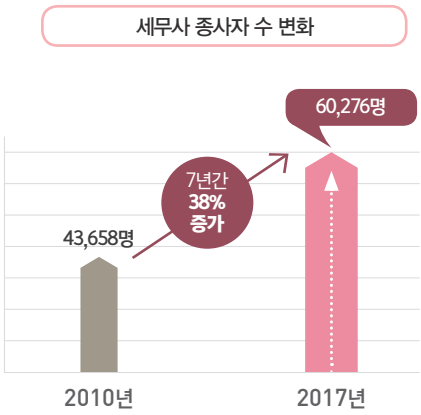
세무사의 직무

1.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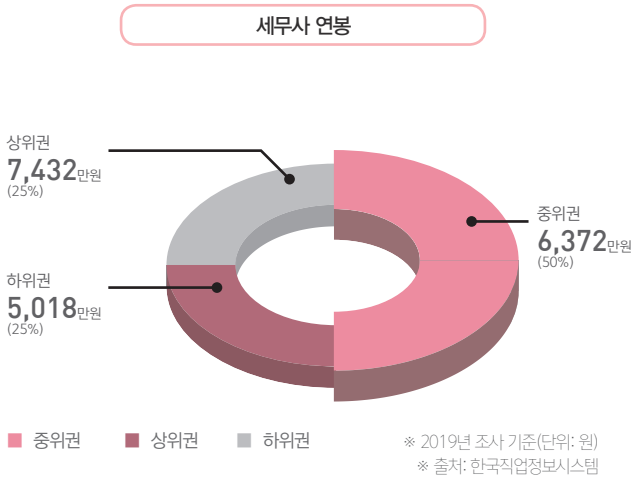
세무사의 전망 및 연봉

세무사 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조사기준 세무사의 평균 임금은 약 6,274만원입니다.





※ 출처: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위의 일자리전망은 직업전문가들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정성적 직업전망조사', 'KNOW 재직자조사' 등 각종 연구와 조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약 6,300만원**

1억 이상의 경력자도 상당수!

02. 세무사 최신 시험 정보

1)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자격시험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시행되는 자격시험을 통해 제1차 · 제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시행기관	시험주기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매년 1회	제1차 · 제2차 모두 합격

세무사 응시자격

세무사 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최종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됩니다.

응시연령	영어과목	학력제한
제한없음	일정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으로 대체	제한없음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기준 접수기간 및 원서접수

접수기간	2022년 4월 11일~ 15일(1 · 2차 동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 제2차만 응시하고자 해도 제1차와 동일한 기간 내 접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함		
접수방법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등록/기존 회원은 사진 수정 등록		
응시료	30,000원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원서접수 시 장애 표기 · 편의요구사항 선택
수험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확인 · 시험당일 지참		

· 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 및 수험표 출력하여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결제: 전자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를 이용합니다.가상계좌는 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접수 취소되며, 접수마감일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수험표 출력: 시험당일 아침까지 재출력 가능합니다.
· 접수내용 변경: 접수 기간 내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하면 됩니다.(접수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일정 및 과목

2022년 시험일정

회차	원서접수	시행지역	1차 시험	1차 발표
제59회	4월 11일~15일 (1 · 2차 동시 접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22.05.28(토)	22.06.29(수)
			2차 시험	**최종 발표**
			22.08.27(토)	22.11.23(수)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기간은 큐넷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

과목 구성 및 특징

재정학	공공경제이론, 조세이론, 재정학의 기타이론	1차 시험만 제출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 2부로 연결
회계학개론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1부로 연결
법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1차 시험만 제출
영어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TOEIC, G-TELP 등

시험시간 및 배점: 객관식 5지택일형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 수	배점
1교시	재정학	09:30 ~ 10:50 (80분)	40문항	100점
	세법학개론		40문항	100점
2교시	회계학개론	11:20 ~ 12:40 (80분)	40문항	100점
	상법 · 민법 · 행정소송법 중 택1		40문항	100점

제2차 시험

과목 구성 및 특징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	세무회계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험시간 및 배점: 주관식 논술형

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 수	배점
1교시	회계학 1부	09:30 ~ 11:00 (90분)	4문항	100점
2교시	회계학 2부	11:30 ~ 13:00 (90분)	4문항	100점
3교시	세법학 1부	14:00 ~ 15:30 (90분)	4문항	100점
4교시	세법학 2부	16:00 ~ 17:30 (90분)	4문항	10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됩니다.

3) 어학성적

기준점수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반 응시자	530점	71점	700점	340점	65점 (Level-2)	625점
청각 장애인	352점	없음	350점	204점 이상	43점 (Level-2)	375점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인정범위

범위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2020.04.16~2022.04.15 사이에 실시된 시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됩니다.

- 일본 토익성적은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필요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토익, 지텔프, 텝스는 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성적 허위 입력 시

당해 시험 무효처리 및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자 및 방법은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을 기제출한 경우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시험 일부면제

제1차 시험 면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세법학 1 · 2부 면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세법학 1 · 2부)가 면제됩니다.

1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면제서류 제출

면제자는 경력 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서식은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3) 시험 일부 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인정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16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접수 취소조치)

유의사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

– 2006.3.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1.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력산정 기준일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6)

5) 합격기준

최소 합격인원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기준 최소 합격 인원은 700명

합격기준

제1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 영어 과목 제외
제2차 시험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위와 같은 득점자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발표	제1차 시험 : 22.06.29(수)	제2차 시험 : 22.11.23(수)
발표방법	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전화 : 4일간(1666-0100)	
합격확인서 발급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자격증 교부	국세청 소득세과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수험자 유의사항은 세무사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합격 통계

제1차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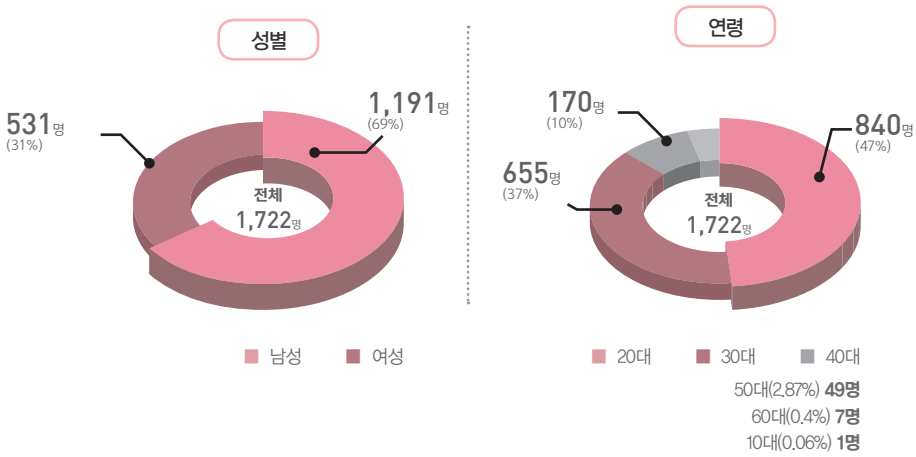
합격률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시험일자	5월 29일(토)	8월 8일(토)	5월 4일(토)	4월 21일(토)	4월 22일(토)
응시자 수	10,348명	9,506명	8,713명	8,937명	8,937명
합격자 수	1,722명	3,221명	2,526명	3,018명	2,501명
합격률	16.64%	33.88%	28.99%	33.64%	27.98%

과목별 평균점수 분포

과목명	평균점수(2021년)			
	응시자 수	평균점수	과락자 수	과락률
재정학	10,348	52.76	2,547	24.61
세법학개론	10,348	39.52	5,313	51.34
회계학개론	10,291	38.10	5,776	56.13
상법	3,591	58.20	841	23.42
민법	940	60.68	176	18.72
행정소송법	5,760	49.46	1,646	28.58

합격자 현황 ※2021년 기준



제2차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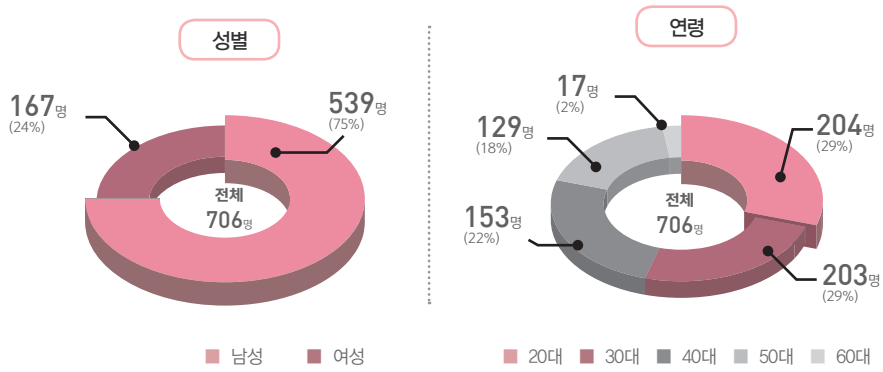
합격률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시험일자	9월 4일(토)	12월 5일(토)	8월 17일(토)	8월 18일(토)	8월 19일(토)
선발예정인원	700명	700명	630명	630명	630명
응시자 수	4,597명	5,378명	5,245명	5,331명	5,305명
합격자 수	706명	711명	725명	643명	630명
합격률	15.35%	13.22%	13.82%	12.06%	11.87%

과목별 평균점수 분포

과목명	평균점수(2021년)			
	응시자수	평균점수	과락자수	과락률
회계학1부	4,597	65.36	671	14.60
회계학2부	4,556	40.39	2,078	45.61
세법학1부	3,962	31.84	3,254	82.13
세법학2부	3,937	39.24	1,747	44.37

합격자 현황 ※2021년 기준



03.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1) 세무사 시험제도

Q) 비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나요?

세무사 시험은 학력 또는 경력, 전공 등과는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어학 성적을 만족시키시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 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을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응시하여 최종 합격할 시 6개월의 수습 기간, 즉 교육을 거친 후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아 정식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Q) 어학 성적은 어떤 시험으로 준비해야 좋을까요?

어학 성적은 최대한 빨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토익과 지텔프 시험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토익 시험을 친 경험이 있다면 토익 시험을, 단기간에 빠른 점수 취득을 필요로 한다며 지텔프를 추천드립니다.

Q) 유예 제도란 무엇인가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그 다음연도의 1차 응시를 면제받고, 곧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유예제도를 활용하여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 해에 시행되는 1,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동차합격'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유예로 합격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Q)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세무사는 8대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만큼 다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회계학과 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유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합니다.

2) 세무사 학습방법

Q) 관련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입문과정부터 수강해야 하나요?

A) 대학교 강의는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입문과정부터 차례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비전공자로 관련 공부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따라 1차는 입문→기본→객관식→모의고사→특강 과정을, 2차는 동차 · 유예 과정과 모의고사를 차례로 진행하시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입문 과정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비전공자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Q) 세무사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과목부터 수강해야 할까요?

회계원리를 우선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회계원리는 합격을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회계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입문 과목이자, 2차 시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회계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생/직장인입니다. 공부와 병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학업/직장과 병행하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학원에 방문하여 주말반 수업을 수강하거나, 인강으로 진도를 나가고 주중에 복습 인강으로 주말 학습 내용을 복습한다면 세무사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보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업 수험생활을 하여 합격 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학원 VS 온라인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보자!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 문항입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에 맞게 하단에 나와있는 학원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장 · 단점을 비교해서 공부 시작 참고용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Q1.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예 / 아니오

Q2.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 예 / 아니오

Q3. 나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야 한다. 예 / 아니오

Q4. 나는 계획을 세우면 잘 못 지킨다. 예 / 아니오

Q5.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예 / 아니오

Q6. 의지가 강한 편이고, 한 번 정한 것은 꼭 지키는 편이다. 예 / 아니오

Q7. 집에서 날 유혹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예 / 아니오

Q8. 나는 PC, 모바일로 이벤트, 수강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예 / 아니오

Q9. 나는 남들이 받는 서비스를 모두 받아야 공부가 잘된다. 예 / 아니오

Q10. 나는 스터디를 하면 학습능률이 더 좋다. 예 / 아니오

---

*'예'가 6개 이상: 학원 강의 / '예'가 5개 이하: 온라인 강의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짚는 강의!

반복학습을 통한 재무회계 정복,
해커스 세무사에서 가능합니다.

해커스 세무사
재무회계 | **김승철 교수님**

3
PART

교수님이 제시하는 과목별 학습 전략

세법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정학

민법

상법

세법 학습 전략

원재훈 교수님

원재훈 교수님
학습 전략

1) 실무적 사례와 접목하여 학습

1차 시험만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 세법을 미룬 채 다른 과목만을 전략적으로 학습하여 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랜 수험생활을 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법을 체계적으로 실무적 사례를 함께 접목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상에 떠도는 메아리 같은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적 현상의 끝자락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 예제와 다양한 문제를 통한 연습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예제와 다양한 문제를 통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세무회계는 반복된 연습과 나름의 풀이방법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이론과 함께 판례 공부

세법학은 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례도 결론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근거와 관련 법령의 해석 능력에 무게를 두고 학습하여야 합니다.

이훈엽 교수님

꼼꼼한 이론학습 나노세무!

이훈엽 교수님 학습 전략

1) 이론서와 문제집은 하나

수험생이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론서만 또는 문제집만 보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보통 이론서만 봅니다. 그 이유를 수험생 경험을 통해 추측해보면 첫째로 이론을 완벽히 숙지 못했다는 생각과 둘째로 문제를 풀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은 이론을 배운 내용이 문제를 통해 이론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이자 하나의 사례이므로 이론만 공부했을 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를 통해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즉시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 이론을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문제는 어떤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지 숙지하셔야 합니다.

세법을 일정기간 이상 공부한 수험생은 문제집만 푸는 행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문제집을 외우는 것이지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공부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출문제는 동일한 주제라도 표현과 문구가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원리와 본질을 공부해야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원리와 본질은 이론서에 담겨 있으므로 합격하는 날까지 이론서를 놓으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이론서와 문제집을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이론서에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시키며, 틀린 문제와 모르는 문제는 이론서를 통해 깨우치는 반복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2) 방대한 양의 세법

세법은 폭넓은 범위를 지닌 과목입니다. 방대한 양의 세법을 다 마스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부터 다 마스터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방대한 양의 세법을 줄이기 위해선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는 세법시험에 출제경향이 담겨있습니다. 즉, 기출문제는 세법 내용이 이론형 또는 계산형으로 출제되는지, 출제빈도수가 많은지 적은지 등을 알려주는 지도이므로 기출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왜, 출제되었는지 계속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처음부터 세법내용을 전부 다 공부하기보다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주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되, 빈도수가 낮거나 어려운 주제는 2회독 또는 3회독 이상 후 공부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법

세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책에 앞부분 내용과 책에 중간, 뒷부분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 세법을 공부하시는 수험생은 오늘 배운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이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그 날 배운 내용을 그 날 복습하며, 이해안되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그래도 안된다면 일단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2회독 때 세법을 보면 느끼는 부분이 다를 테고, 3회독 때 세법을 보면 다시 알게 되는 부분이 많으며 4회독, 5회독을 걸쳐 세법을 깨우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유독 많은 양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짧은 기간동안 일정이상의 회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A는 세법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6개월 동안 1번 보았습니다. 이해 안되는 부분은 그날 그날 이해될 때까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반면에 수험생B는 세법을 6개월동안 2개월에 걸쳐 3회독 하였으며, 처음엔 이해 안가는 내용은 회독을 걸쳐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수험생B처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 이해 위주의 공부와 암기위주의 공부

세법은 항상 취지가 있되 논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공부하실 때 왜 이러한 법이 생겼으며, 과세관청은 왜 과세를 하려고 하는지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세법을 포함한 모든 수험과목은 암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과 다양한 주제를 배우는 세법을 암기위주의 공부보다는 이해위주의 공부를 하려고 하되, 이해가 안된 부분은 암기라도 한 후 다음 회독 때 이해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재무회계 학습 전략

정윤돈 교수님

다각도 문제접근법으로 이해!

정윤돈 교수님 학습 전략

1)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재무회계의 학습은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 거래별 회계처리를 잘하여도 그 효과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재무회계 공부를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무회계를 학습할 때는 회계처리에 집중하기보다 각 거래가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끝없이 고민하여 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장 중요한 수업은 기본반 수업

재무회계는 세무사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재무회계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여러 단계의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재무회계의 목적인 재무제표 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므로, 논리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해 없는 암기식의 공부 방법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이론의 전개과정에 따른 핵심논리를 철저히 이해한 다음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직접 연습장에 손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비로소 해당 내용을 확실히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위주 학습으로 응용력 향상!

김승철 교수님 학습 전략

1) 회계원리를 무시하지 마라

재무회계는 회계원리에서 출발하여 중급회계, 더 나아가 고급회계의 순서로 학습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수험생의 경우 회계원리를 건너뛰고 중급회계부터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원리를 충분히 선행 학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몇 배 빨리 재무회계를 정복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착오 최소화

재무회계는 세무사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이지만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고득점이 어려우며 조금만 소홀히 해도 과락을 걱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학습 분량도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습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행착오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원종 교수님

합격에 필요한 내용만 배운다!

김원종 교수님 학습 전략

1) 수업을 듣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복습

자격증 공부는 가장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예습은 자격증 공부에 비효율적인 학습이며, 가능한 수업을 듣고 **빠른 시간에 복습하여 강의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한다면 복습시간을 단축하여 다른 과목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날 배운 것을 그 날 복습하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학습 방법입니다.

2) 회계처리를 무시하지 마라

회계학 1차, 2차 시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강의시간에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회계학의 기본 원리인 회계처리를 해보지 않고 문제만 푸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을 보면 스킬을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25% 이하이며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회계학의 기본 논리의 회계처리는 적어도 기본서를 학습하실 때 **예제의 회계처리는 3번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가관리회계 학습 전략

엄윤 교수님

최소한의 틀로 다양한 문제 커버!

엄윤 교수님 학습 전략

1) 주제별 주요 핵심사항 정리

1차 시험에서의 원가회계는 회계학 총 40문항 중에 15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분량이 많은 재무회계에 비하여 합격을 위한 전략 과목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 범위에 걸쳐 모든 주제를 골고루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별 주요 사항들을 묻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 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주제별 주요 핵심사항들을 정리한다면 상당히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자료정리 연습을 철저히

2차 시험에서의 원가관리회계는 회계학1부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며 1차 시험에 비하여 주어진 자료가 많아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전에 연습문제를 통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정리에 대한 연습을 철저히 한다면 실제 난이도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2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대비 연습문제를 통해서 대형화된 문제에 적응하여야 합니다.

3) 전형적인 문제 선별 및 반복 연습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는 응용문제보다는 각 주제별 주요내용들을 다루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선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장 별 3문제~5문제 정도를 선별해서 자료정리와 실제 답안작성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경태 교수님

기본에 충실한 것이 고득점의 길!

강경태 교수님 학습 전략

1) 이해 위주의 학습

원가관리회계는 2차 시험에서 계산과정이 필요한 과목이며,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빈번히 출제되는 응용문제를 풀 수가 없으므로 철저히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시험 직전까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막판에 암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2) 예제와 다양한 문제를 통한 연습

우선 원가관리회계 전체 구조를 이해하여 숲 전체를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예제와 다양한 문제를 통한 연습이 중**요합니다.

3) 동일한 풀이 방법 적용

원가관리회계는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를 풀이할 때 항상 동일한 풀이 방법**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빠르게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점검을 위한 모의고사

어느 정도 기본 다지기와 문제 연습이 되어 있다면, **모의고사를 많이 보아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분석을 통한 문제풀이 완성!

현진환 교수님
학습 전략

1) 기출문제 분석으로 패턴 파악

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의 유형을 보면 각 주제에서 주요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총 50개의 패턴으로 나눌 수 있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어느 Chapter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 문제를 다독하는 습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자료에 익숙해져서 제한된 시간에 풀이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한 번 풀고 문제를 3~4회 반복해서 읽어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풀이 후 다독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자료를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제시하고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는 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원가관리회계 시험을 잘 보는 비결입니다.

3) 문제 자료 정리하기

2차 시험의 관건은 문제 자료 정리입니다. 2차 시험의 대형화된 문제에서는 자료 정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전에 2차 연습서의 문제를 통하여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정리에 대한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1차 시험에서 공부 방법에서 제시하였던 다독입니다. 2차 연습서의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 대형화된 문제를 풀이 이후 5회~6회 정도의 다독을 통해서 대형화된 문제에 적응해야 됩니다.

재정학 학습 전략

서호성 교수님

선택과 집중으로 심플하게!

서호성 교수님 학습 전략

1) 기초재정학 강의 수강

비전공자들은 재정학 하면 그래프와 수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래프와 수식은 개념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초재정학 강의는 최대한 그래프와 수식을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촬영하였습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재정학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2) 그래프에 집착하지 않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필기를 하다가 이해를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를 놓치면 다음 수업을 연결할 때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처음 수업을 들으실 때는 필기보다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한 후 복습하실 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완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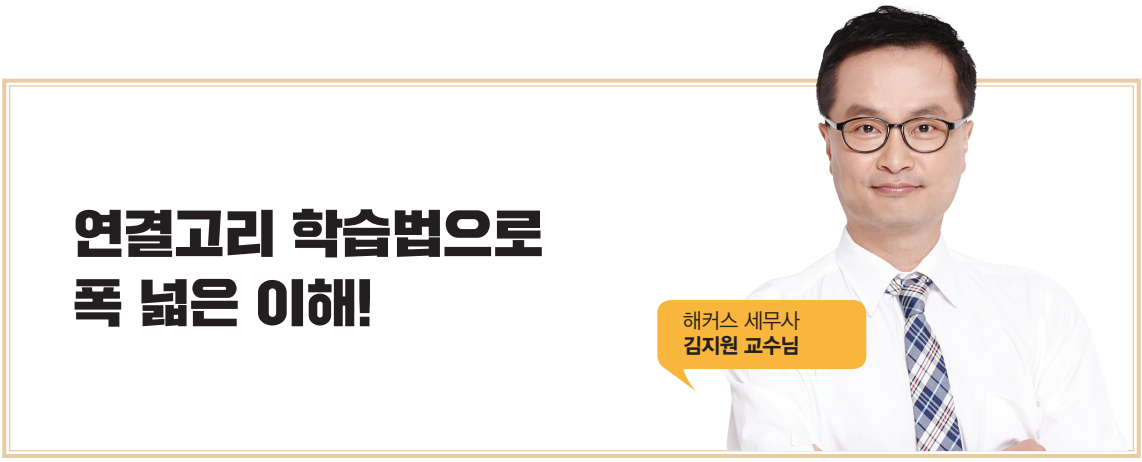
재정학은 생소한 용어와 수식,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용 중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수업을 들으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완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재정학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완강하시길 바랍니다.

4) 기출 포인트 중심으로 꾸준한 학습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학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기본 이론을 숙지한 후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론 단계에서 복습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단계를 거듭할수록 학습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기존의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 꾸준히 공부하여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법 학습 전략

김지원 교수님



김지원 교수님
학습 전략

1)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와 내용 요약 정리

중요 출제 부분을 집중 정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소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기억하여 정답을 골 라 낼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2) 중요 출제 내역에 집중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출제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서의 모든 부분을 평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내역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만 추려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시험합격의 비결이자 지름길 입니다.

3) 중요 판례 이해와 조문 암기

특히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통한 기본이론의 정립이 필수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아래 와 같습니다.

1.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기본강의와 핵심강의, 문제풀이는 필수입니다.
2.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거친 후 실전 모의고사를 거쳐 실전 감각을 배양하여야 합니다.
3. 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하여 민법의 Weak-Point를 보완하시면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상법 학습 전략

이정엽 교수님

생활 속 사례로 알아보는 기본 이론!

이정엽 교수님 학습 전략

1) 기본서 숙지

기본서는 서술이 체계적이고 제도의 취지나 예시 등의 설명이 풍부하여 상법의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해 없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문이 기출문제 지문과 약간만 달라져도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통한 이해 위주의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 익히기

기출문제풀이는 주요 출제포인트를 파악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해주어 실전에서 의 득점력 향상에 매우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학습의 목적이 시험 합격인 만큼 기출문제풀이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다음으로 해설을 읽으며 지문별로 해당 지문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조문, 판례 등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강의 수강하기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 상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민법의 기본 개념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상법 책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을 모르고는 상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의 수강과 함께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다지고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핵심 이론 집중 비교 분석!

해커스 세무사에서는
세법의 디테일을 잡는 풀이로 세법 완성이 가능합니다.

해커스 세무사
세법 | **이훈엽 교수님**

4
PART

시작부터 합격까지,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01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연간 커리큘럼

02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의

1) 집중 관리반

2) 200% 환급반 / 평생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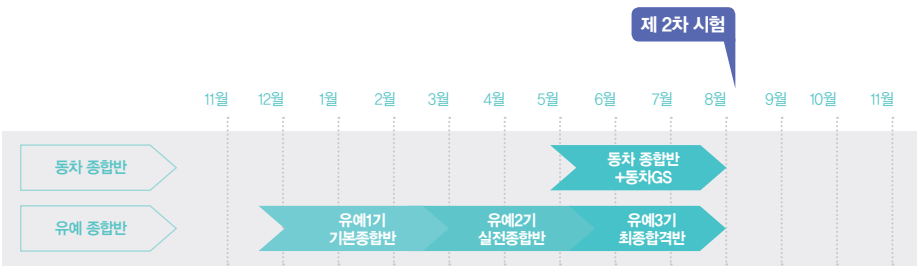
03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재

04 세무사 온·오프라인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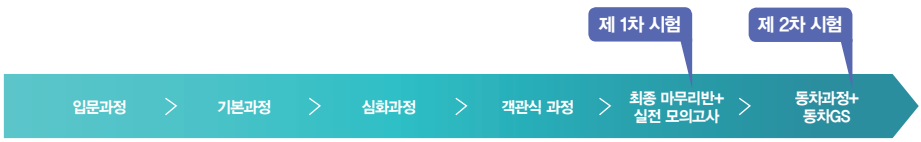
01.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연간 커리큘럼

제1차 시험 대비

제2차 시험 대비



해커스 종합반 과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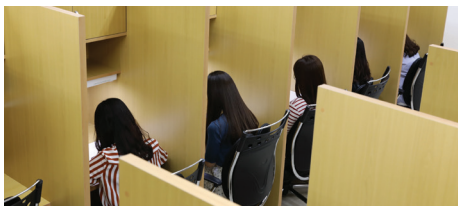


필수기초	1차 이론 완성	2차 이론 선행	핵심개념 + 문제풀이	빡센 문제풀이 + 실전연습	2차 이론 완성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회계원리 세법 입문 기초재정학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상법/민법/행소법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상법/민법/행소법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상법/민법/행소법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학원시설

강의실 | 3층 + 4층

경영아카데미 최강 교수진들의 강의를
최고의 음향 장비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강의실!



독서실형 자습실 | 3층 + 4층

백색소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집중하기 좋은 환경!

개인 사물함 | 3층 + 4층

오시는길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강남역캠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12 세계빌딩 4층(커피빈 건물) | 강남역 2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수강문의	02-599-3011
운영시간	08:30~23:30
학습상담	09:00~21:00
상담신청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사이트(cpa.Hackers.com) 접속 → 학원안내 → 학습상담 → 상담희망 일자 선택 · 상담내용 기입 후 신청 → 학원 방문

지금 바로 ▶ 상담 신청하기

1) 집중 관리반

목표는 합격 뿐! 해커스만의 '독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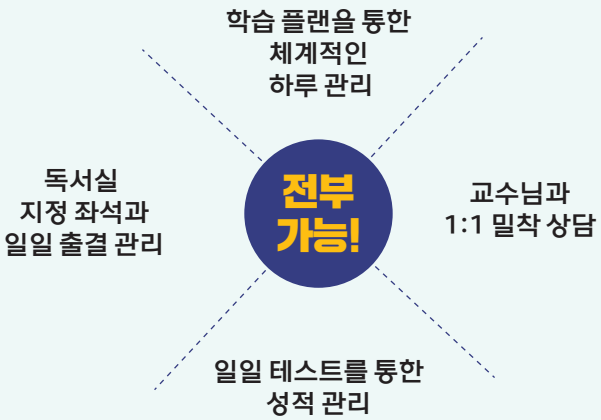
해커스 세무사 집중관리 종합반

합격할 수 있는 습관,
해커스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출석+일일 테스트를 통한 **학습관리**
- 교수님의 **1:1 밀착 피드백**
- 관리형반 **전용 굿즈 제공**

해커스 집중관리 종합반, 왜 필요할까요?



집중관리 시스템 알아보기

구분	학습시간	학습내용	
오전	~08:30	등원	
	08:30~08:40	학습 플랜 작성	
	08:40~08:50	기출 퀴즈 진행	
	08:50~09:00	출석 체크	학습 플랜+기출 퀴즈 답안지 제출
	09:00~13:00	출석 체크	오전 수업 or 의무 자습
점심	13:00~14:00	점심 식사	
오후	14:00~18:00	출석 체크	오후 수업 or 의무 자습
저녁	18:00~19:00	의무 자습	
	19:00~22:00	출석 체크	의무 자습
	22:00~23:00	자율 자습 or 퇴실	

*2021년 11월 기주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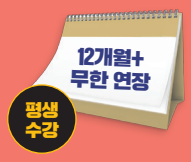
2) 200% 환급반 / 평생반

합격하면 수강료 최대 300만원 환급

해커스 세무사

평생 200% 환급반

빠른 세무사 합격,
해커스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 비매품

- 수강료 최대 **200% 환급**
-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 수강**
- 특별 제작 **교재 5권 무료**

해커스 평생 200% 환급반 왜 필요할까요?

1. 세무사 합격하면 **최대 3,104,400원* 환급**
2. 복잡한 미션 없이 **합격할 때까지 평생 수강**
3. **토익·지텔프 강의**로 어학 성적도 단번에 완성
4. **1·2차 전 과목****수강기간 동안 지속적인 업데이트

언제든지 최종 합격하고 최대 200% 환급 받고 싶다면?	넉넉한 수강기간 내 합격하고 100% 환급 받고 싶다면?	합리적인 수강료로 평생 무제한 수강 하고 싶다면?
↓	↓	↓
평생 200% 환급반	**100% 환급반**	**평생 수강반**

수강신청하고 모든 혜택 받기 >

* 3,104,400원: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쿠폰 미적용가 기준/상세 내용 페이지 확인
**전과목: 모의고사 과정 미제공

03.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재

검증된 베스트셀러 1위 해커스 세무사 교재 시리즈

입문서

1 · 2차 시험의 중요과목인 세법, 재무회계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 입니다.

기본서

개정 내용 및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세무사 기본서 입니다.

실전서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연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실전서 입니다.

요약서

핵심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요약서 입니다.

해커스 IFRS **중급회계 입문**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2021.03.23, 온라인 주간 집계 기준) **해커스 IFRS 중급회계 1**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사 분야 1위 (2021.09.28,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중급회계 2**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2.01,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勝중급회계 상**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 (2021.08.04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勝중급회계 하**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9.17,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元 중급회계 상**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1.13,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元 중급회계 하**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4.19,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사 IFRS 元고급회계 (김원종)**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2021.08.04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재무회계 키 핸드북**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2.02,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POINT 재무회계**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9.17,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IFRS 객관식 재무회계 세트 (정윤돈)**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 (2021.01.13,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사 IFRS 재무회계연습(정윤돈)**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2021.08.04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사 IFRS 元재무회계연습(김원종)**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전문직자격증 세무사 분야 베스트셀러 (2021.03.03,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법 비기닝**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 1위(2021.01.21,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엔딩 1** (4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전문직자격증 공인회계사 분야 베스트셀러 (2021.03.08,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엔딩 2** (4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2021.03.23, 온라인 주간 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엔딩 3** (4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4.14,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엔딩 핸드북**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4.15,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연습 1**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전문직자격증 공인회계사 분야 베스트셀러 (2021.03.08,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회계연습 2** (2판) 법인세법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공인회계사 분야 (2021.04.14,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판례세법** (3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전문직자격증 세무사 분야 베스트셀러 1위 (2021.06.21,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법학 기출문제집** (2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2021.08.04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세무회계 기출문제집**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세무사 분야(2021.9.17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해커스 세무사 재정학** (1판) 교보문고 취업/수험서 베스트셀러 1위 세무사 분야(2021.08.17 교보문고 온라인 주간집계 기준)

04. 세무사 온·오프라인 설명회

세무사 관련
모든 궁금증
해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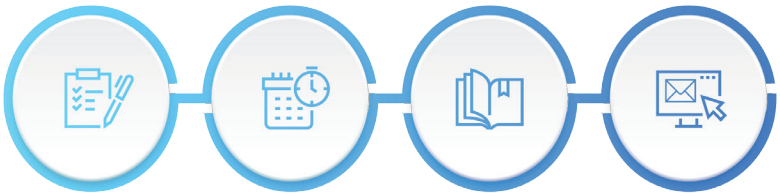
Q

전공자가 아닌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 준비할 수 있나요?

인강과 실강, 어떤 것을 들어야 하죠?

세무사 시험은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시험 정보

시기별
학습전략

과목별
학습전략

개인별
학습전략

세무사
온 · 오프라인
설명회 참석 방법

1월·7월

해커스 세무사 1차
합격전략
LIVE 설명회

12월

해커스 세무사 2차
유예기본반
합격 LIVE 설명회

*설명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신청하고
푸짐한 혜택 받기

핵심포인트 집중학습!

해커스 세무사에서 반복학습을 통해
원가관리회계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해커스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 **엄윤 교수님**

5
PART

세무사 1·2차 적중 문제

01 재정학 서호성 교수님의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02 재무회계 김승철 교수님의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03 2021년 제58회 세법학 1,2부 적중 문제

04 문제 해설

01. 재정학 서호성 교수님의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재정학

문제 1 **조세의 귀착과 전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 부담의 귀착(incidence)은 궁극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를 뜻하는 개념이다.

②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누가 조세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③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shifting)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④ 법적 귀착보다 경제적 귀착이 적은 경우 다른 경제 주체에게 조세 부담을 이동시킨 것이다. 즉, 조세를 전가했다고 할 수 있다.

⑤ 부담의 전가는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과부담은 실제 조세징수액 이상으로 조세가 가져오는 실제 부담을 의미한다.

② 두 재화가 완전 보완재인 경우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효과는 소득효과만 발생할 뿐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④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에 비례한다.

⑤ 한 재화의 시장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던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므로 후생이 증가한다.

해커스 재정학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확인하기 ▶

02. 재무회계 김승철 교수님의 1차 시험 적중 예상 문제

재무회계

문제 1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200,000에 구입하였는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40,00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한국은 20×1년 말과 20×2년 말 재평가한 결과,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40,000과 ₩120,000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20×2년 1월 1일 건물을 점검한 결과 연수합계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고,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되었다. 동 건물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x2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① ₩28,000 감소	₩ 8,000 증가
② ₩28,000 감소	₩36,000 증가
③ ₩30,000 감소	₩30,000 증가
④ ₩56,000 감소	₩30,000 증가
⑤ ₩56,000 감소	₩36,000 증가

문제 2 (주)한국의 20x1년도 사업활동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① ₩4,680,000 ② ₩4,760,000 ③ ₩4,990,000
④ ₩5,020,000 ⑤ ₩5,280,000

해커스 세무사 설명회 만족도
1위 김승철 교수님의
강의 확인하기 ▶

03. 2021년 제58회 세법학 1,2부 적중 문제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국방부의 군사정보보안시스템 구축사업 중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함)의 공급을 도급받은 후 2016년 7월 1일 B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함)와 쟁점장비를 2016년 7월 31일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2016년 8월 10일 B회사로부터 쟁점장비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9년 2월경 A회사에 대한 2015년 및 2016년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장비의 공급에 관하여 별다른 세금 탈루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종결하였다. 그 이후 2020년 7월경 과세관청의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회사의 대표이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장비의 공급은 B회사의 복수의 협력사들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회사는 쟁점장비의 공급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정신고까지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1년 5월경 A회사에 대하여 다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2017년 4월경에도 쟁점장비의 공급과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재조사의 범위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위 확대'라 함).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1) 국세기본법령상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사례〉에서 이 사건 재조사가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4점)

물음 3)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4점)

물음 4)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이 사건 범위 확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A회사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단, 〈사례〉에서 A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에 정한 '중소규모납세자'에 해당함). (4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인 甲은 2010년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A가든'이라는 상호로 고급음식점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다. 甲은 2021년 5월 31일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甲이 제출한 서류에는 월별 수입금액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일일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나 증빙이 없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15억 원인데 반해 甲이 제출한 서류상의 수입금액은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증빙이 없다. 한편 甲이 신고한 장부상의 원 · 부재료비 지출액은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지출액의 50%에 불과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의 甲의 원시기록 장부상의 실제 수입금액 (15억 원)과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원 · 부재료비 지출액(6억 원)을 기초로 비용관계비율(2.5)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산출하는 한편, 원시장 부상의 실제 원 · 부재료 지출액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과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와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점)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2)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 · 경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사례〉가 적법한 추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8점)

물음 3) 소득세법령상 추계 결정 · 경정 방법 중 하나인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4) 「소득세법 시행령」상 추계 결정 · 경정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도 추계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甲이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 (10점)

세법학 2부

문제 2 **세무사업을 영위중인 甲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乙과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丙의 요청으로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乙이 영위하려고 하는 골프장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의 과세요건 · 과세표준 · 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乙이 영위하려고 하는 골프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에서 열리는 골프대회(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대한골프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임)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 중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과세여부를 설명하시오. (3점)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3) 丙이 영위하려고 하는 유흥주점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4) 丙이 영위하려고 하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 2021년 현재 甲(65세)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乙(61세), 장남 丙(30세), 차남 丁(28세)이다. 이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다.

(1) 甲은 2007년 8월경부터 중소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갖춤)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A회사를 경영해왔고, 丙에게 가업을 승계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甲은 2021년 5월 30일 乙이 10년이상 보유하던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乙로부터 받은 주식을 丙에게 모두 증여하였다. 2021년 8월 20일 丙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丁은 평소 소프트웨어와 앱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던 중 2021년 6월 15일 甲에게 중소기업(제조업) 창업을 위한 자금을 부탁하였다. 2021년 6월 20일 甲은 丁에게 창업자금으로 현금 10억 원을 증여하였다. 2021년 8월 25일 丁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1) 지문 (1)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 증여자, 수증자, 특례내용을 설명하고, 丙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15점)

출제포인트 적중 물음 2) 지문 (2)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 증여자, 수증자, 특례내용을 설명하고, 丁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2021년 해커스 세무사
세법학 모의고사
적중내역 확인하기 ▶

04. 문제 해설

재정학

문제 1 ⑤

주제 – 조세의 귀착과 전가

⑤ 부담의 전가는 각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문제 2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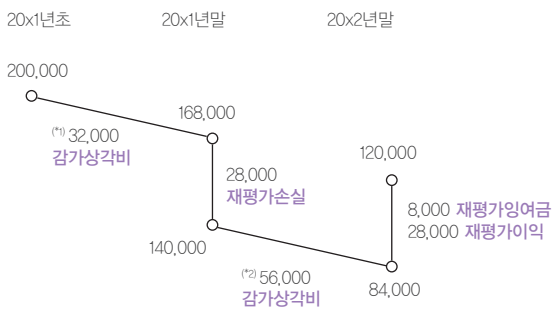
주제 – 초과부담

⑤ 조세의 부과가 반드시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체재의 경우에는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보완재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에서 재화의 성격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재무회계

문제 1 ⑤

(1) 재평가모형의 적용



(*1) 20x1년 감가상각비 : (200,000 – 40,000) ÷ 5년 = 32,000
(*2) 20x2년 감가상각비 : (140,000 – 0) × 4/10 = 56,000

(2)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 효과

① 20x2년 당기순이익 효과 : (–)56,000(감가상각비) + 28,000(재평가이익) = (–)28,000 감소
② 20x2년 기타포괄손익 효과 : 8,000(재평가잉여금) 증가

문제 2 ③

(1) 영업활동현금흐름

PL	당기순이익	(*1)3,500,000	
	법인세비용	1,500,000	복합활동 비용 제거
	감가상각비	750,000	투자활동 비용 제거
	유형자산처분손실	260,000	투자활동 비용 제거
	사채상환이익	(340,000)	재무활동 수익 제거
	이자비용	310,000	재무활동 비용 제거
BS	매출채권의 증가	(290,000)	
	재고자산의 감소	300,000	
	매입채무의 증가	250,00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6,240,000	
	법인세현금유출액	(*2)(1,250,000)	
	영업활동현금흐름	4,990,000	

(*1) 5,000,000 − 1,500,000 = 3,500,000

(*2) −1,500,000 + 250,000 = (−)1,250,000

(2) 별해

PL	당기순이익	3,500,000	
	감가상각비	750,000	비영업활동 비용 제거
	유형자산처분손실	260,000	비영업활동 비용 제거
	사채상환이익	(340,000)	비영업활동 수익 제거
	이자비용	310,000	비영업활동 비용 제거
BS	매출채권의 증가	(290,000)	
	재고자산의 감소	300,000	
	매입채무의 증가	250,000	
	미지급법인세의 증가	250,000	
	영업활동현금흐름	4,990,000	

세법학 1부 • 2부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원재훈 교수님
적중 문제
해설 강의 확인하기

총평후기 작성하고
수강료 지원받자!

[원재훈]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세무사 온라인 단과 강좌 순매출액 기준(20.12.01~21.05.31)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교육그룹 선호도 **1위 해커스**
한경비즈니스 선정 2019 한국 브랜드선호도 교육(교육그룹) 부문 1위

합격이 쉬워지는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무료 강의

실시간 가장 HOT한 무료 강의 제공!

무료 특강 | **과정별 맛보기 강의** | **설명회 영상**

여유 시간 활용!

독서실이나 학원 이동 중에도
식사 중에도 **해커스 무료 특강**으로
남는 시간을 활용해보세요!

무료 특강 정보 빠르게 확인!

최신 특강 업로드 정보, 찾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해커스 경영아카데미의**
무료특강에서 확인해보세요.

"**유튜브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다양한 강의 영상, 무료특강 등**
좋은 강의를 경험할 수 있어 수강하기 전에도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 제57회 세무사 합격자 이은혜 합격 인터뷰 中 -

57회 세무사 합격생이
추천한 특강 지금 확인! ▶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유튜브 구독하기 ▶

고객센터
02.537.5000

cpa.Hackers.com